

12~13면 편의증진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적정화를 위한 실태조사

다 함께하는 사회구현

새보람

SAEBORAM

14면 화제의 인물



장애 딛고 대학 수석 졸업한 고강민씨.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2)796-4280

www.kappd.or.kr

제222호

2011년 3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11. 4. 22(금) 14:00 ~ 18:00 / ◆ 장소 : 이룸센터 지하1층 이룸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APPD 법인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access/use/moving
ATAC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Amenity Technical Assistant Center For The Disabled, etc.

「제20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두달 앞으로

오는 5월 8일 오전 8시 잠실 올림픽주경기장, 'IPC 공인' 확정
국내외 마라토너 관심 집중...조직위, "역대 최고 대회로 만들 것"



「제20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가 "도전과 극복, 서울의 감동을 세계로"를 슬로건으로 오는 5월 8일(일)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사진-지난 19회 대회 폴코스 출발장면)

세계 휠체어마라토너의 축제, "도전과 극복, 서울의 감동을 세계로"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국제공인 「제20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가 이제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가 오는 5월 8일(일) 오전 8시, 서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개최하는 「제20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에서는 국제적 명성과 최고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의 휠체어마라토너들이 42.195km의 풀코스, 21.0975km의 하프코스 등에 참가해 지난 1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대회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오며 전 세계 휠체어마라토너의 눈은 지금 서울로 향해 있다. 10여개국의 선수들이 이미 참가신청을 마쳤고,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조직위원회(대회장 김정록, 이하 조직위)에는 선수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한편 조직위는 이번 대회를 '역대 최고의 대회'로 만들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참가 선수들을 위한 숙소를 대회장에 인접한 올림픽파크텔(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마련했고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국내외 TOP CLASS 선수들의 참가를 독려함은 물론, 선수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기 위한 '문화탐방'과 '마라톤 전야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대회의 성공적인 유치 및 장애인육상 발전을 위한 '홍보대사'를 섭외 중에 있다. 또한 지난달 '국제장애인육상연맹(IPC Athletics) 공인'이 확정되며 참가 선수들의 대회기록이 국제적인 '공인기록'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10km 부문이 신설된다. 10km 부문에서는 시각, 청각, 지적, 자폐성장애인 등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대회의 문호를 개방하며 국내외의 모든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마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2010년 19회 대회에서는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히던 소에지마 마사즈미(Soejima Masazumi)와 결승선까지 각축을 벌인 일본의 호키노우에 코타(Hokinoue Kota)가 1시간 25분 12초의 기록으로 풀코스의 우승을 차지했다. UDT 출신으로 화제를 모은 한국의 김규대 선수(27)는 1시간 35분 11초의 기록으로 국내 1위, 전체 8위에 올랐다.

이밖에 하프부문에서는 일본의 히로미치 준(Hiromichi Jun)이 47분 5초로 남자부 우승을 차지했고, 한국의 이유미 선수가 1시간 13분 20초의 기록으로 하프부문 여자부 1위를 차지했다.

「제20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대한장애인육상연맹 및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공동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KBS한국방송이 후원하며 신한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협찬한다.



발행인 칼럼

“일본의 조속한 재건을 기원합니다”

이라고 발표했고, 일본 NHK 방송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대 4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비관적인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잔해더미와 시신으로 가득한 초토화된 마을, 여진과 원자력발전기 추가 폭발에 의한 방사능 공포로 가득한 일본의 상황은 생존자를 찾는 것을 포기할 정도로 너무나도 처참하고

심각합니다.

일본은 지리적·경제적으로 우리와 가장 가깝지만, ‘일제치하’를 겪은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이유로 애증이 교차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준 역사적·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사죄하지 않았던 일본에 우리는 애증을 넘어 적대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지난날 일본의 잘못에 대한 결과”, “하늘이 내린

벌”이란 식으로 지금 일본이 처한 위기를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도시를 삼켰습니다. 아름다웠던 해변 마을은 잔해더미로 파묻혔고, 사망자와 실종자 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잃은 어린 아이들은 좁고 낮은 피난소에서 하루하루를 눈물과 공포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과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아픔과 눈물인 것입니다.

센카쿠(尖閣·중국명 다오위다오) 열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일본과 군사적 대치 상황까지 빚었던 중국 정부도 일본에 구호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 여배우 송단단(宋丹丹)은 블로그를 통해 “일본, 비록 중국인의 마음에 상처를 안겨줬지만 오늘 만큼은 13억 중국인이 당신의 고통을 기원합니다”란 글을 남기며 애도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을 강타한 쓰나미가 중국과 일본 간 해묵은 갈등도 잠시 휩쓸어간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의 아픔을 함께해야 할

니다.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시대인이라는 의미 이상으로 일본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므로, 이제 우리는 그들의 눈물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닦아 줘야 할 것입니다. 엄청난 자연재해는 비록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해도 이후 사태를 수습하고 복구하는 과정에서 지구촌 공동체가, 이웃사촌들끼리 서로 돕고 협력하는 모습을 확인하며 새로운 미래를 일구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희생자와 그 유가족에게는 물론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자연재해 속에서 공포에 떨고 있을 모든 일본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조속한 재건을 통해 하루속히 행복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11년 3월 14일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김정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 간담회’ 개최

김정록 중앙회장, ‘장애인 일자리 확대’ 제안



지난달 24일 열린 ‘복지정책 간담회’ 모습. ©보건복지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정록 중앙회장이 지난달 24일 (목)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이하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복지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 3년을 맞이해 복지전문가 및 현장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부 진수희 장관과 최영현 장애인정책국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정록 중앙회장, 나사렛대학교 김종인 재

활복지대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진수희 장관은 현 정부 출범 3년 성과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및 정착, 양육수당지급,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 등 복지제도의 틀을 완비해 가고 있다”고 현 정부의 지난 3년을 평가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선 정부의 더 많은 노력과 공공·민간의 지속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정록 중앙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강화, 입양가정지원 확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개선’ 토론회

오는 4월 22일...장애인의 날 주간행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가 성행함에 따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시정계획이나 방법은 미봉책(彌縫策)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시설지원센터(센터장 김정록, 이하 센터)와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오는 4월 22일(금)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이룸센터 이룸홀(지하 1층)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개선방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의 파악과 현재 대두되고 있는 장애인계의 쟁점을 정리한다.

또한 ‘불법주차 예방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전문업체의 의견을 청취하여 장애인당사자가 희망하는 ‘개선방향’과 ‘대안’을 모색함을 물론, 관련 부처와 장애인계와의 ‘합의’로 도출된 대응책을 여론화하는 뜻 깊은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22호 2011년 3월 15일

회 장 · 발행인 / 김정록 편집장 / 이현일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 / 서울라05825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 hambaknun30@nate.com

대표전화:(02)796-4280 FAX:(02)796-428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장애인민원상담 실무자 교육’ 오는 25일 개최



지난해 5월 7일 개최된 '2010년 장애인종합민원상담 실무자 교육' 모습.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는 오는 3월 25일(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에 위치한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2011년 장애인종합민원상담

실무자 교육」을 개최한다. 지장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협회, 지회 및 산하기관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200여명의 실무자들이 참가하는 이번 교육에서는 매년 바뀌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책을 비롯한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다양한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상담 사례를 공유하는 물론, 상담관련 종사자들의 전국적인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뜻 깊은 시간이 마련된다.

이날 교육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인정정책과 최혁기 사무관의 '장애인활동지원법',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재준 과장의 '법률 지식과 피해구제', 지장협 중앙회 이춘희 여성정책팀장의 '2011년 변경된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강의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월대보름 척사대회’ 실시 투호놀이 등 민속놀이 체험

서울협회 동대문구지회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동대문구지회(지회장 장금영, 이하 동대문지회)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장애인단체 정월대보름 척사대회'를 지난달 17일(목) 동대문구 용두동에 소재한 장애인무료급식소 앞에서 개최했다.

한나라당 장광근 국회의원과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비롯한 내·외빈들과 150여명의 장애인 가족들이 함께 하며 성황을 이룬 이날 척사대회에서는 윷놀이, 투호놀이, 고리던지기 등의 전통 민속놀이 체험은 물론, 오곡밥과 부



'장애인단체 정월대보름 척사대회'에 참가한 한 장애인이 즐거운 표정을 지으며 투호놀이를 하고 있다.

럼을 함께 나누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됐다.

‘제28회 정기총회’ 개최

2011년 사업·예산 승인...감사 선출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회장 부형중)는 2월 21일(월) 11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다목적실에서 '제2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0년 사업 결산 보고와 2011년 사업계

획·예산(안) 승인 및 감사 선출권이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고 감사에는 오형범, 임경윤씨가 선출되었다.

이날 회장 인사말을 대독한 김현식 부회장은 "협회 회원들과 임·직원의 꾸준한 노력으로 제주도내 최다 회원 장애인 단체로서 만족할 만한 사업성과를 내고

협회 위상을 빛낼 수 있었으며, 2011년 을 한해도 더 나은 협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기 총회의 개회식에서는 제주시지회 김대원, 서귀포시지회 강유민 신임 지회장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다.



제주시지회 김대원지회장과 서귀포시지회 강유민지회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장면.

2011년도 정기대의원총회

- 일시 : 2011년 3월 28일(월) 오후 2시
- 장소 : 이룸센터 이룸홀(여의도 소재)
- 주최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

☎ 02)796-4280

지역 장애인복지를 위해 전력

민원 이동상담 및 편의시설 홍보 전시회 개최



경북협회 김천시지회가 실시한 지난달 실시한 '장애인 종합 이동민원상담'에서 한 농촌장애인이 장애인복지혜택에 대해 상담을 받고 있다.

경북협회 김천시지회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지회장 박선하, 이하 김천지회)가 지역 내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지회의

모든 전력을 다하고 있다.

김천지회는 지난 2월 25일(금) 오후 1시부터 아포읍 국사1리 마을회관에서 아포읍 거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종합 이동민원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이동상담에서는 등록 장애인에 대한 제도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으면서도 등록절차를 몰라 비장애인으로 살아가는 농촌 주민들이 장애인 등록을 하여 각종 복지혜택을 받도록 유도했다.

아포읍 국사1리에 거주하는 N(여, 75세)씨는 5년 전 관절염으로 무릎에 인공관절을 시술하고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이날 상담을 통해 병원의사의 장애인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등록을 하여 전화, 핸드폰요금 등의 복지 혜택을 받게 되었다.

박선하 지회장은 이동상담



지난 7일 실시된 '장애인 편의시설 홍보 카툰전시회' 모습.

이 끝난 후 "지회의 상담전문 사회복지사 2명이 농촌마을 현장에서 직접 상담을 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을 해결해 주어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효과가 크다"며 "앞으로 장애인이동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찾아가는 장애인 복지를 펼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동상담에 이어 김천지회는 지난 3월 7일(월) 오전 10시

김천시 청사 현관 입구 로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홍보 카툰전시회'를 개최했다.

김천시 내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3월 한달간 실시될 예정인 이번 전시회는 김천지회가 후원한 만화가 이상윤 씨가 제작한 카툰 20점이 전시돼 김천시민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하고 홍보하는 기회가 되었다.

장애가정 학생에 장학금 전달

지회 후원단체, '작은사랑후원회' 지원

대전협회 동구시지회

지난 2월 22일(화) 오후 2시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지회장 최재천) 사무실에서 '제5회 작은사랑후원회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다.

동구지회의 후원단체인 '작은사랑후원회'의 지원으로 마련된 이날 전달식을 통해 동구지역 25명의 장애인가정 학생

들에게 총 1,045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25명의 학생 중 초등학생에게는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45만원, 대학생에게는 50만원의 장학금이 각각 전달됐다.

한편 동구지회의 후원단체인 '작은사랑후원회'는 (주)21세기상품을 경영하고 있는 남상규 회장을 비롯한 7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제5회 작은사랑후원회 장학금 전달식' 행사 모습.

2009년 2월부터 현재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5명의 장애인가정 학생들에게 총 5,5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장애인단체장 간담회' 열려 북구장애인복지관 건립 논의



지난 3일 열린 '장애인단체장 간담회' 포항시 관계자와 장애인단체장들이 북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의 주제로 열린 토론을 벌이고 있다.

경북협회 포항시지회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지회장 이용성)는 지난 3일(목) 남구 대도동 포항시지회 회의실에서 '장애인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단체장들은 포항시 장애인들의 염원인 '북구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 논의하고 오는 4월에 열리는 '제3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어울림한마당',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

조례 추진계획'에 대해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31회 장애인의 날 주간행사인 '장애인단체별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장애인 등 편의시설 조례 시 조사인원과 책임자 구성' 등에 따른 예산편성 추진 등이 논의됐다.

한편, '제3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어울림한마당'은 오는 4월 19일(화)에 열리며, 경북지체장애인협회 포항지회에서 주최·주관하고 포항시에서 후원한다.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MVP' 쾌거



금메달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경상남도 대표 휠체어컬링팀.

경남협회 창원시지회

지난달 15일(화) 개막한 '제8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컬링종목에 출전한 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회 창원시지회의 회원

들이 금메달과 대회 MVP를 동시에 달성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창원시지회의 양해남 분회장(53), 정영아 분회장(33·여), 강외정 회원(46·여) 등 3명의 선수가 포함된 경남 휠체어 컬링

팀은 지난 2월 18일(금) 창원서부스포츠센터 빙상장에서 열린 컬링 결승전에서 경북대표팀을 맞아 7-4로 승리를 거둬 금메달을 차지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가장 뜨거운 열정과 감동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으며 대회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2004년 원년 대회 이후 동·하계 장애인체전을 통틀어 '단체 종목'이 MVP를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팀의 전술가이자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창원시지회 정태영 분회장은 "국가대표가 되면서 많은 연습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우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밝혔다.

‘패밀리가 떴다 시즌2’ 시 지원 사업 선정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2011년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지원 사업’에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정의철)의 장애아동 가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인 ‘패밀리가 떴다 시즌2’가 선정됐다.

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족들에게 표현·예술활동의 맞춤형 적용을 통해 가족 간의 심리적인 위기 극복과 긍정적 상호작용의 방법 획득을 통한 가족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족들의 ‘자조집단 형성’을 도모하여 사회적 지지세력 구축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될 ‘패밀리가 떴다 시즌2’에서는 가족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의 ‘패밀리가 떴다’ 프로그램 모습.

기능 강화를 위한 엄마와 장애아동이 함께하는 집단 미술치료, 가족 체험활동, 맞춤형 여행 지원 등의 프로그램과 또래 체험활동,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비장애 형제지원 프로그램, 장애아동 부모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정의철 관장은 “2011년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장애 아동가족 당사자의 욕구를 적극 반영한 고객맞춤형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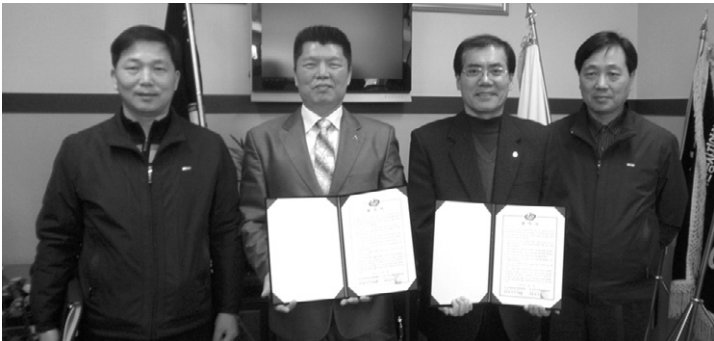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석연)은 지난 2월 22일(화) 오전 11시 복지관 관장실에서 한국환경공단 충청지역본부(본부장 이덕호)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한국환경공단 충청지역본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재가장애인 가정을 찾아가는 ‘자원봉사활동’과 ‘후원’을 하게 된다.

한국환경공단 충청지역본부 이덕호 본부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오늘 협약을 계기로 본부 직원들과 틈틈이 시간을 내어 재가장애인 가정을 찾아 그

한국환경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재가장애인 자원봉사 및 후원 약속



윤석연 관장(가운데 왼쪽)과 이덕호 본부장(가운데 오른쪽)이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분들의 삶을 살피며, 더불어 살 작은 힘을 보태겠다”라고 약속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했다.

용인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용인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정성기) 건강관리팀은 지난 9일(수) 복지관의 고령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운동을 통한 치매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노인건강의 문제점, 편마비와 지체장애인에 게 유용한 운동의 종류, 운동과 치매의 연관성 등을 교육함은 물론, 전문강사의 교육 하에 팔·다리 운동 방법을 직접 해 보는 유익한 시간이 마련됐다.



용인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지난 9일 실시한 ‘운동을 통한 치매 예방 교육’ 모습.

치매 예방 “운동이 최선!”

‘사회복귀 프로그램’ 전국 최우수기관 표창



목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조문호 관장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0년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신체능력향상 프로그램 수행 전국 최우수기관 표창패를 받고 있다.

목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목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조문호, 이하 목포복지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한 ‘2010년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신체능력향상 프로그램(이하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수행기관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를 통해 목포복지관은 지난 달 15일(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기관 및 담당자 표창과 함께 포상금을 수여받음은 물론, 향후 2013년까지 3년 동안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받아 목포지역 산업재해 근로자들의 재활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목포복지관은 산업재해 근로자의 심리적 안정과 함께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조기에 사회 및 직업복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 사업을 레저스포츠 및 웃음치료, 원예치료 등 지역적인 특색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참가 산재근로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되는 과정 중에도 꾸준한 취업알선을 통하여 산재근로자들이 하루속히 직장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목포복지관 조문호 관장은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및 지역 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장애인의 취업을 선도하는 복지관이 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나도 국가대표” 스키체험 실시



나도 국가대표-신나는 스키체험에 참가한 장애청소년들이 즐거운 표정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천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김천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선하, 이하 김천복지관)은 2월 22일(화) 무주 리조트에서 계절스포츠의 일환으로 ‘나도 국가대표-신나는 스키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스키체험은 장애청소년 10명, 직원 및 자원봉사자 10명이 참여하여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스키장비 착용법 및 기

초강습을 통해 평소 접하기 힘든 겨울철 대표 스포츠인 ‘스키’에 도전함으로써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스키체험에 참가한 정경엽(19, 지적장애2급)군은 “막연하게 두려웠던 스키를 강습을 통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다음에는 더 높은 곳에서 혼자 내려올 수 있도록 도전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복지부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탄력 전망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개정안)’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투표 참여 의원 232명 중 230명 찬성, 2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오는 10월 ‘주간보호’를 제외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로 시행된다.

본인부담금은 기존 법안대로 급여비용의 15% 한도 내에서 일정비율 부과되며, 서비스 신청 대상도 1급 장애인에 한한다. 또한 만65세 이상 장애인은 노인 장기요양제도로 편입돼 지원받게 된다.

한편 개정안 통과와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시행령·규칙 제정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 10일 시행령·규칙을 입법예고할 계획이었으나, ‘개정안의 국회 심의 진행 동안 기다리겠다’며 입법예고를 미뤄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규칙 입법예고를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박은수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10개 정도의 주요 쟁점 중 ‘주간보호’만이 삭제된 개정안이 통과돼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에 따라 남겨진 과제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앞으로 이 과제를 장애인계와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거주 기능을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도 함께 통과했다. 개정안은 투표 참여 의원 233명 중 229명 찬성, 4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 장애인생활시설의 종류 및 기능에 대한 재정립을 통해 시설 장애인의 사회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 마련 및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하며, 장애인의 성·연령 및 장애유형에 따른 시설 선택 정보 등을 제공



지난 3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해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시설 이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시설 이용자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해 본인부담금(대통령령으로 정함)을 부과할 수도 있다.

개정안은 특히 특수 서비스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한 시설의 정원이 30

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 ‘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등의 조항도 신설됐다.

이밖에도 장애인복지시설기관이 시설장 교체 및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출처·에이블뉴스〉

이정선 의원, ‘장애인 미인가 시설 인권 점검단’ 활동 보고

장애인 미인가 시설, 전환 및 폐쇄론 부족



‘장애인 미인가 시설 인권 점검단’이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활동 보고대회를 열고, 장애인들의 인권을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자리를 가졌다.

장애인 미인가 시설에 대해 단순히 인가시설 전환 혹은 폐쇄로 끝날 것이 아니라 거주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중앙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이정선 의원은 지난달 16일(수)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 미인가 시설

인권 점검단 활동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전국 장애인 미인가 시설 22개 시설을 점검, 성폭행·감금·수급 비횡령 등의 불법행위가 일어난 9개 시설에 대한 인가시설 전환 및 폐쇄조치를 취한 점검단이 ‘장애인 미신고시설 인권 실태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점검한 22개 시설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95명 중 91명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의 강요 및 강제로 입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시설에서 퇴소할 경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249명 중 30.2%인 75명이 퇴소가 가능하지만 가족 등 보호자, 시설장의 허락을 받아야할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실제 본인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주인이 57.3%인 145명이나 됐다. 여기에 시설 운영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 지에 대한 물음에 255명 중 22명이 ‘폭언만을 수시로 당했다’, 10명이 ‘폭행만을 수시로 당했다’, 14명이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고 응답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삼

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종화 교수는 “현재 전국 미인가 시설 22곳 중 9곳에 대해 인가시설 전환 및 폐쇄 조치가 취해졌다. 하지만 단순히 전환 혹은 폐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중증장애인 지역사회보호 5개년 계획’을 추진, 거주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교수는 “전국 장애인 인가·미인가 시설의 주요 장애대상은 지적장애인이었다”면서 “장애 특성상 수급비관리나 인권보호와 권리대변을 통한 후견인제도를 구축, 지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권리옹호가 이루어져야 하고 성년후견인제도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김동호 과장은 “250개 지자체를 활용해 ‘(가칭)인권보호상담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며,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관련 분야 교수나 단

체 전문가를 상담위원으로 위촉해 관내에 감시기능의 틀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과장은 “현재 이정선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역재활시설을 거주시설유형으로 변환, 소규모 시설에서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배치 등 각종 운영기준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 미인가 시설 인권 점검단 활동 보고대회’를 개최한 한나라당 중앙장애인위원장 이정선 의원.

10명 중 4명만이 장애인연금 ‘만족’

‘장애인 연금 만족도 조사’ 결과...적은 연금이 원인



2009년 11월 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1만 1천명의 넘는 장애인들이 참여한 '장애인연금 확보를 위한 장애인 총결의 대회'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장애인 10명 중 4명만이 장애인연금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10명 중 4명만이 장애인연금에 '만족'하고 있어 장애인연금 지급액수 상향조정 등의 변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지난 1일(화) 공개한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연금 수급자 800명 중 40.3%가 장애인연금을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39.5%는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20.1%는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인연금 도입 인식이

나 발전 방향은 비교적 높았다. 장애인연금 도입 및 연금지급에 대해 65.8%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으며, 장애인연금의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도 79.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기존 기본 9만원에서 최대15만원(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지급됐던 장애인연금액에 대해선 75%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장애인연금을 알게 된 경로로는 공무원·사회복지사 또는 복지부 안내우편물이 절반(51.3%)을 차지했으며, TV·신문 등 매스컴(17.7%), 동료·친구(7.9%), 정부홍보물(4.8%)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주 복지부는 MB정부 출범 3년의 성과 중 하나로 장애인연금을 들면서

맞춤형 복지기반을 확립했다고 선전했으나 채 반쪽도 안되는 정책을 가지고 확립을 운운한 것은 잘못"이라며 "한달에 20만원도 안되는 적은 연금, 도입 당시 무수히 제기됐던 등급 판정의 문제들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복지부는 생색내기 조사가 아니라 구체적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를 통해 점차 개선해가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복지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갤럽이 지난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전국 장애인연금 수급자(장애 1급·2급·3급중복)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출처-에이블뉴스〉

‘장애인생계형저축’ 비과세 2년 연장 추진

오제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된 노인·장애인 생계형저축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2013년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지난 9일(수)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2005년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장애급여 지출비중은 0.1%로 OECD 회원국 평균 1.3%보다 매우 낮고, 장애인과 일반인의 소득증가율 격차도 점차 벌어지고 있다”며 “높은 빈곤 위험에 처해있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지원해 생활의 안정을 위해 노인·장애인의 생계형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의 일몰시한을 연장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오 의원은 “악화된 여건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시한도 연장해야 한



민주당 오제세 의원. ①오제세 의원 홈페이지

다”고 덧붙였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오는 12월 31일까지인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 비과세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적용 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제세·김재균·백재현·김영록·정장선·김성곤·김춘진·이찬열·김진표·유선호·박영선·유성엽 등 총 12명 의원이 발의했다.

장애인남편 살해 교사女 징역12년

내연남에게 장애인 남편을 살해하라고 교사한 여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집에 불이 난 것처럼 가장해 남편을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교사)로 기소된 이모씨(50)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27일(금)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의 남편을 살해하고 화기에 그의 막내아들까지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내연남 김모씨(39)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밀하고 잔인한 범행수법으로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므로 엄중

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뇌병변 3급인 장애인 남편과의 사이에 5명의 자녀를 둔 이씨는 2008년 말부터 김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남편의 병간호와 생활고에 지친 이씨는 이듬해 10월 김씨에게 “남편이 혼자 있는 시간을 알려줘 테니 사회복지사로 위장해 집에 가서 불을 지르라”며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씨의 집에 불을 질러 이씨의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씨의 8살짜리 막내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4월부터 신규 장애인 ‘장애등급심사’ 강화

등급심사센터에서 모든 신규장애인 등급판정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장애등급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오는 4월부터 1~6급의 모든 신규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등급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등급 외 판정 장애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일(수) “올해 4월 변경 시행되는 장애등급심사에 맞추기 위해 장애등급심사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현행 장애등급심사는 기존 등록자 중 재판정 기간이 도래하거나 활동보조서비스 및 장애인

연금 등을 신청한 자로 의료기관에서 1~3급의 장애인단을 받은 사람에게 한해 실시됐다. 하지만 4월부터는 1~6급 신규장애인도 장애심사센터를 통한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기존대로 등록장애인 중 활동보조서비스 및 장애인연금 신청자도 심사 대상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의사)의 권한도 축소된다. 과거 장애등급을 판정해왔던 의료기관은 등급 판정을 제외하고 장애상태만을 파악해 장애인단서에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

기관의 장애인단서에는 ‘장애등급 기재란’도 없어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는 장애인단서에 등급 대신 장애상태만을 명확히 기재하게 된다”며 “이는 일선 의사들이 환자를 계속적으로 진료하는 과정에서(등급 판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느끼는 부담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3월 31일까지 장애등급심사는 지난해와 같이 1~3급(활동보조서비스 및 장애인연금 신청자)의 경우에 한해 장애등급심사가 진행된다.

장애인 미고용 시 ‘최저임금 수준 부담금’ 부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9일 공포

고용노동부(장관 임태희)는 2월 28일(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수) 공포됐다고 밝혔다.

■ 장애인 미고용 사업주 고용부담금 인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에 따르면 상시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수의 2.3%(공공기관 3%) 이상을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또한 1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담기초액(2011년 1인당 56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 공포에 따라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부담기초액이 1인당 56만원에서 최저임금액 90만원으로 상향된다.

시행 시기는 공공기관과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오는 7월 1일, 상시 20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012년 1



장애인 표준사업장 ㈜CPL

월 1일, 상시 100인 이상 2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013년 1월 1일부터다.

■ 공동투자형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허용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기업이 자회사 형태로 출자해 설립하는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을 말한다.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이 중 중증장애인을 50% 이상 채용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종전에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 소유한 기업에게만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장애인 고용률 및 고용부담금 산정 시 혜택을 줬다.

하지만 2명 이상의 사업주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하는 형태인 공동투자형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대해서도 출자 비율에 따라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을 투

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으로 인정된다.

또한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오는 2011년부터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의 50% 세액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 교사 구분모집 예외 폐지

국가·자치단체는 ‘공무원 신규채용’ 인원의 3%(단, 장애인 고용률 3% 미만이면 6%) 이상을 장애인이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종전에는 교사 신규채용 시 장애인 응시인원 또는 합격자 수가 장애인 채용예정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분모집 예외 규정을 두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해도 비장애인 교사로 채용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구분모집 예외규정이 폐지됐다. 교사의 경우에도 일반 공무원처럼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은 결원으로 운영하거나 재공모를 통해 반드시 장애인 교사를 채용해야 하는 것. 교사 양성기간 등을 감안, 2015년부터 시행된다.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제재규정 합리화

법률 개정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 장려금을 지급받았거나 받으려한 자에 대해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이외에 추가징수액을 현행 2배에서 부정횟수에 비례하도록 ‘5배’까지 징수된다. 반면 지급제한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출처-에이블뉴스〉

인권위, 장애인 폭행 시설장 검찰 고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장애인을 폭행하고 장애 수당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서울의 한 장애인 생활시설장과 생활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8일(화) 밝혔다.

또 서울시와 해당 구청, 보건복지부에 해당 시설을 폐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이 시설에서 생활교사로 근무한 A씨는 장애인을 폭행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이고 노동을 강요하는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시설의 시설장과 생활교사가 장애인을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았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제공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진정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시설장이 장애인들의 수급비와 각종 후원금 가운데 4,000여 만 원을 자신의 대출금 이자를 갚는데 쓰는 등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회계 자료 없이 불분명하게 사용한 금액도 5,800여 만원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6회 우승 시동



한국대표선수단 워크숍 진행 장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8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서 통산 ‘6번’째 종합우승을 노리고 있는 한국대표선수단의 목표의식과 팀워크를 다지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국가대표 기능선수 지도위원을 포함한 한국선수단은 지난 10일(목)부터 11일(금)까지 1박

2일간 서울 양재동에 소재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8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한국대표선수단 워크숍’을 통해 내실 있는 기능 훈련을 모색하고 국가대표로서 일체감 형성과 정신력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회 조직위원장인 한국장애

인고용공단 이성규 이사장은 “대회 종합 우승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인식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8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는 오는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되며 약 50개국 15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한국대표는 지난 7회 대회까지 다섯 번의 종합 우승을 거둔 바 있다.

한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11 서울 제8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한 바 있다.

복지부, 4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40만원 지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4월부터 임신부에게 지원하는 진료비 지원액이 '40만원'으로 확대된다.

오는 4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30만원에서 40만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달 2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4월 1일 신청자부터 임신부에게 지원하는 진료비 지원액이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임신부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은행지점, 우체국을 방문해 임신·출

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는 국민은행으로부터 '고운맘 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고운맘 카드는 카드 수령일 이후 사용할 수 있으며, 분만예정일부터 60일 이후까지 지정된 요양기관(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초음파 등 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가능한 지정요양기

관은 건보공단 건강IN홈페이지(<http://hi.nhic.or.kr>),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히 1일 4만원 사용 한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현재 복지부는 1일 사용 한도액을 최대 6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3월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금 잔액 및 사용 내역 등은 사회서비스관리센터

(www.socialservice.or.kr) 및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에서 조회하면 된다.

신청 관련 기타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카드 발급 관련 사항은 1599-790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약품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출처-에이블뉴스〉

저소득층 디지털TV 구매 10만원 지원

방통위, '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 고시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지난달 24일(목)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저소득층에 '10만원'씩의 디지털TV 구매 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디지털 TV를 구매할 때 10만원의 구매 보조금을 받거나 무상으로 컨버터를 보급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와 TV수신료 면제가구 중 국가 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이다.

방통위는 다음 달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전수조사를 벌여 지원대상자를 찾고, 5월 중 지원 업무를 담당할 지원센터를 전국 8개 시도에 설치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읍·면·동사무소나 인터넷 등을 통해 받으며 해당 가구는 7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장애인 주거지원 추진 계획' 발표

최대 7천만원 지원...맞춤형 주거개선 지원



서울시는 지난 3일 월세 거주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2011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이하 서울시)가 월세를 사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전세주택 보증금을 무상 지원하기 위한 '2011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지원 사업' 추진 계획을 지난 3일(목)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저소득 중증장애인 227가구에 총 112억 3,1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무상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월세 거주자로 세대주가 1~2급 장애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7,000만원 이내의 전세자금을 최장 6년간 지원한다.

또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40가구를 선정하여 총 2억여원을 투입해 화장실 개선, 문턱제거, 경사로·핸드레일·기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맞춤형 주거개선'을 전문가 및 교수 등이 참여하는 '맞춤형 주거개선팀'이 투입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립희망 시설 퇴소자가 6~18개월 거주할 수 있는 체험홈 20개소와 체험홈 수료 장애인에게 최장 5년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가정 21개소에 대해 총 9억67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의 저소득 장애인 전세주택 및 집수리 대상가구 선정은 오는 5월까지 진행하며, 맞춤형 주거개선사업 공사는 10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복지부, 장애아동 입양가정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이하 복지부)는 국내 장애아동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장애아동의 양육 보조금과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한다고 지난달 17일(목)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장애아동 '양육보조금'이 월 57만원에서 62만7000원으로 늘어나고 의료

비 지원도 연간 252만원에서 26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국내 입양 시 입양기관으로 지원되는 입양수수료도 기존에 1건 당 24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입양수수료를 30만원 늘려 입양수수료 지원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장애인 세금감면 차량 처분기한 연장

행안부, 개정안 입법예고... '60일'로 연장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이하 행안부)는 지난 2일(수) 장애인 자동차를 바꿀 때 기존 차량의 처분 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늘리는 내용의 '지

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동거가족 공동 명의로 등록돼 있는 차량은 가구당 1대에 한

해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감면되며, 차량을 교체할 때는 기존 차량을 처분해야 한다.

행안부는 장애인용 차량은 일반 차량보다 매매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기존 차량을 처분하는 기한을 늘려주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이 장애인 가족과 차량을 공동 등록할 경우에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외국인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2천600여가구가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11 달라지는 장애인 고용 관련 제도

1. 장애인고용 장려금

① 주요요지

○ 6급 장애인에 대해 근로연수에 따라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3조)

② 달라지는 내용

기존	변경 후
▶ 6급 장애인(국가유공자 6 급 포함) 입사일로부터 만 4년 경과 시에도 지원	▶ 6급 장애인(국가유공자 6·7급 포함)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만 지원

2. 장애인 고용부담금

① 주요요지

○ 부담기초액 상향조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고용노동부고시)

○ 의무고용사업주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액(건설업) 기준금액 상향조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고용노동부고시)

○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부칙

○ 고용부담금 부과에 대한 특례로서 감면대상 사업주 축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부칙

② 달라지는 내용

기존	변경 후
▶ (부담기초액) 530,000원	▶ (부담기초액) 560,000원
▶ (공사실적액 기준금액) 6,203백만 원	▶ (공사실적액 기준금액) 7,049백만 원
▶ (업종별 적용제외율) 임업 등 11개 업종	▶ (업종별 적용제외율) 적용폐지
▶ (감면대상 사업주) 상시 100인~299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	▶ (감면대상 사업주) 상시 100인~199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 ▶ 상시 200~299명 사업체 부과특례 적용 종료

3.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① 주요요지

○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액의 연도별 한도액 조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직업재활시설등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기준(고용노동부고시)

② 달라지는 내용

기존	변경 후
▶ 부담금 납부총액의 100분의 100	▶ 부담금 납부총액의 100분의 75(최저임금 이상, 적용제외인가 불포함)

4. 장애인표준사업장

① 주요 요지

○ 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제도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6)

② 달라지는 내용

기존	변경 후
▶ 신규	▶ 2013. 12.31까지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사업주에 대해 인정연도가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5. 고용관리비용 지원사업

① 주요 요지

○ 수화통역사비용지급 폐지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용자·지원규정 제16조 및 부칙 제2조(고용노동부고시)

② 달라지는 내용

기존	변경 후
▶ 수화통역사를 위촉·배치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급	▶ 수화통역사 비용지급 폐지(기존 수급인정 사업주는 3년간 비용지급)

6.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① 주요요지

○ 훈련생 훈련수당 인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지원고용), 장애인직업재활사업규정(고용노동부고시)

② 달라지는 내용

기존	변경 후
▶ 훈련생 훈련수당 8,000원	▶ 훈련생 훈련수당 12,000원

7. 시험고용

① 주요요지

○ 시험고용 연수생 수당 인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5조(시험고용)

② 달라지는 내용

기존	변경 후
▶ 연수생 수당 60만원	▶ 연수생 수당 70만원

2011. 2. 18. 관련법 개정 주요 내용

① 근로지원인 서비스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제19조의 2 신설)

▷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지원인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 직업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②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 인정(제22조제4항 신설)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주식

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 그 비율만큼 장애인 고용률 및 부담금 산정에 반영해주되,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의 비율은 실질적 지배사업주의 비율로 포함시켜 주도록 함

③ 교사 신규채용에 대한 장애인구분 모집 예외조항을 폐지 (제27조제2항 단서삭제, 부칙 단서)

▷ 교사 신규채용에 대한 장애인구분 모집 예외조항을 폐지하여 교사의 신규채용 시에도 구분모집을 의무화하되, 그 시행시기를 2015년으로 함

④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액을 현행 '2배'에서 '5배 범위'로 변경 등(제31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신설)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시 추가징수액을 현행 '2배'에서 '5배 범위'로 변경하고, 지급제한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되 종전의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하고, 지급제한 기산시점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제한을 하기로 한 날부터로 명확히 함

⑤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

업주에 대한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조정하되, 그 시행 시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리 함(안 제33조제3항, 부칙 단서 및 각호)

▷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않은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2011년 7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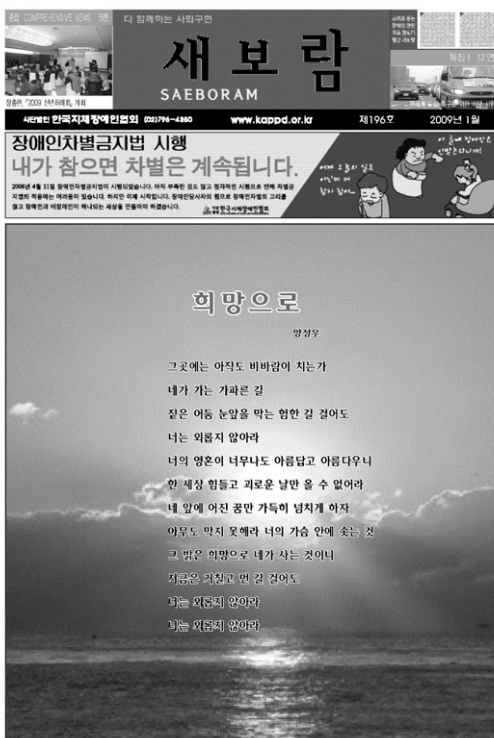
－ 상시 2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주: 2012년 1월 1일

－ 상시 100명 이상 200명 미만 사업주: 2013년 1월 1일

2011년 달라지는 새보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에서 매월 발행하고 있는 장애인신문 '월간 새보람'의 편집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010년 새보람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결과를 지난 1월 '새보람(제220호)'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 새보람의 지난날을 평가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뜻 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애정 어린 질책과 격려를 해주신 독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지는 '2011년 새보람'의 변화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문의

중앙회 홍보협력팀 이현일

02)2289-4381

hambaknun30@nate.com

새보람을 사랑해 주신 독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480만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장애인복지의 길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은 신문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2011년 달라지는 새보람

① 종이 질 '업그레이드'

- 만족도 조사를 통해 많은 독자 여러분들께서 새보람 용지의 질을 높여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요청을 반영해 기존 46g 용지를 54g 용지로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② 장애계 관련 이슈, 정보 제공 확대

- 장애계 관련 정보, 이슈, 복지정보가 만족도 조사의 '2010년 가장 즐겨 보았던 기사'와 '2011년 더욱 중점적으로 다뤄야 하는 기사' 항목의 상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장애계 관련 이슈, 정보(복지정보)의 지면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종합 : 기존 2~3면에서 4면으로 확대, 복지정보 : 최소 2면 이상

③ 우리들의 이야기

- 'people(화제의 인물)' 코너를 신설해 우리 주변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물론, 사람들 간의 따뜻한 세상사는 이야기를 독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④ "독자에, 독자에 의한, 독자를 위한 신문"

- 독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새보람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전국의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 새보람이 진정한 480만 장애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해 주십시오. 세상사는 이야기, 정책 비판 및 제안을 비롯해 그 어떤 주제도 새보람은 환영합니다. 원고는 매달 8일까지 이메일(hambaknun30@nate.com)이나 팩스(796-4281)로 보내면 되고, 기사로 채택되는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⑤ "메일링 서비스 실시"

- 새보람은 매달 15일 발행되는 월간지이며 독자 여러분의 집까지 배송되기까지는 약 일주일(7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좀 더 빨리 새보람을 보고 싶으신 독자께서는 새보람 '메일링 서비스(메일 전송 서비스)'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메일링 서비스 신청 : 이메일(hambaknun30@nate.com),

Tel (02) 2289-4301 Fax (02) 796-4281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APPD 법인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적정화를

정당한 편의제공 54.6% “미흡”...대전, 적정설치율 전국 1위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센터장 김정록, 이하 센터)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장애인차별금지법 대응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적정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는 2010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 체육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전국 체육시설의 실태를 확인함은 물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응한 체육시설인지 여부를 편의증진 전문기관인 센터를 통해 모니터링을 받기 위함이다. 본지는 전국 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의 중요한 기초데이터가 될 「장애인차별금지법 대응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적정화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지면을 통해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삼암월드컵경기장 현장 조사

■ 조사의 목적

장애인에 있어 체육활동은 신체적·정신적 재활을 도모하고 체육활동을 통한 사회성 발달 등 장애인 복지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이 2007년 4월 10일 제정되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어 장애인의 시설물에 대한 차별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체육시설에 관한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별표5]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은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차별금지

〈표-1〉 체육시설 소재 시·도별 설치현황

번호	지역	대상시설 수 (대상건축물 수)	설치대상수 (A)	단순설치수 (B)	적정설치수 (C)	단 순 설치율(B/A)	적정설치율 (C/A)
1	서울	212	25,699	17,886	15,175	69.6%	59.0%
2	부산	47	5,166	3,527	2,875	68.3%	55.7%
3	대구	51	6,402	3,968	3,241	62.0%	50.6%
4	인천	30	4,315	3,189	2,702	73.9%	62.6%
5	광주	34	4,083	2,629	2,417	64.4%	59.2%
6	대전	30	3,026	2,525	2,453	83.4%	81.1%
7	울산	18	3,225	2,182	2,052	67.7%	63.6%
8	경기	194	25,043	15,051	13,003	60.1%	51.9%
9	강원	1	184	63	25	34.2%	13.6%
10	충북	19	2,841	1,606	1,365	56.5%	48.0%
11	충남	48	4,589	2,591	1,840	56.5%	40.1%
12	전북	25	3,697	1,998	1,680	54.0%	45.4%
13	전남	4	635	378	327	59.5%	51.5%
14	경북	14	1,386	772	686	55.7%	49.5%
15	경남	75	6,837	4,629	4,161	67.7%	60.9%
16	제주	74	9,648	4,609	4,284	47.8%	44.4%
합계		876	106,776	67,603	58,286	63.3%	54.6%

법에 대응할 만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체육시설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대상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 실태조사 결과

1. 체육시설 시·도별 설치현황

조사결과 국가는 3개 부처가 공공체육시설을 소유하고 있으며, 16개 체육시설 소재 시·도별 설치현황은 〈표-1〉과 같다.

2. 적정설치수 및 설치율

공공체육시설의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관람석, 수영장 입수보조시설과 실내체육관의 좌식배구 지주대 및 골볼 골대 등 세부항목 총 280,320개 중 해당항목인 106,776개를

34개 체육시설 소유기관별 설치율현황

구분	적정 설치수	부적정 설치수	미설치수	비해당수	단순설치	대상합계	총계	적정 설치율	부적정 설치율	미설치율	비해당율	단순 설치율	총계	대상 시설수	순위
국가	3,370	493	1,834	8,063	3,863	5,697	13,760	59.2%	8.7%	32.2%	58.6%	67.9%	100%	43	11
서울특별시	8,549	1,661	4,098	25,052	10,210	14,308	39,360	59.7%	11.6%	28.6%	63.6%	71.3%	100%	123	10
서울노원구	464	92	332	1,672	556	888	2,560	52.3%	10.4%	37.4%	65.3%	62.7%	100%	8	23
서울양천구	1,126	211	723	3,060	1,337	2,060	5,120	54.7%	10.2%	35.1%	59.8%	64.9%	100%	16	21
서울강서구	723	154	395	1,608	877	1,272	2,880	56.8%	12.1%	31.1%	55.8%	68.9%	100%	9	16
서울관악구	699	91	369	1,721	790	1,159	2,880	60.3%	7.9%	31.8%	59.8%	68.2%	100%	9	9
서울강남구	779	173	398	1,850	952	1,350	3,200	57.7%	12.8%	29.5%	57.8%	70.5%	100%	10	14
서울송파구	818	119	444	2,459	937	1,381	3,840	59.2%	8.6%	32.2%	64.0%	67.8%	100%	12	11
부산광역시	2,807	633	1,589	9,691	3,440	5,029	14,720	55.8%	12.6%	31.6%	65.8%	68.4%	100%	46	17
대구광역시	2,841	665	2,234	8,980	3,506	5,740	14,720	49.5%	11.6%	38.9%	61.0%	61.1%	100%	45	27
대구달서구	377	52	157	694	429	586	1,280	64.3%	8.9%	26.8%	54.2%	73.2%	100%	4	4
인천광역시	2,378	405	916	3,981	2,783	3,699	7,680	64.3%	10.9%	24.8%	51.8%	75.2%	100%	24	4
인천부평구	324	82	210	1,304	406	616	1,920	52.6%	13.3%	34.1%	67.9%	65.9%	100%	6	22
광주광역시	2,321	197	1,413	6,629	2,518	3,931	10,560	59.0%	5.0%	35.9%	62.8%	64.0%	100%	33	13
대전광역시	2,453	72	501	6,574	2,525	3,026	9,600	81.1%	2.4%	16.6%	68.5%	83.5%	100%	30	1
울산광역시	2,052	130	1,043	2,535	2,182	3,225	5,760	63.6%	4.0%	32.3%	44.0%	67.6%	100%	18	7
경기도	217	18	161	564	235	396	960	54.8%	4.5%	40.7%	58.8%	59.3%	100%	3	20
경기수원시	1,539	437	826	7,118	1,976	2,802	9,920	54.9%	15.6%	29.5%	71.8%	70.5%	100%	31	19
경기성남시	2,410	441	2,004	5,065	2,851	4,855	9,920	49.6%	9.1%	41.3%	51.1%	58.7%	100%	31	26
경기안양시	1,064	94	381	2,621	1,158	1,539	4,160	69.1%	6.1%	24.8%	63.0%	75.2%	100%	13	3

위한 실태조사 결과

〈표-2〉체육시설 적정설치수 및 설치율

대상시설 수 (대상건축물 수)	설치대상수 (A)	단순설치수 (B)	적정설치수 (C)	단 순 설치율(B/A)	적정설치율 (C/A)
876	106,776	67,603	58,286	63.3%	54.6%

※ 적정설치율 : 설치된 편의시설의 내용이 편의증진법의 설치기준을 완전하게 충족시키는 비율
※ 국가 및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2010년 7월 1일 기준 38개이나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상 4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을 소유하지 않아 소유기관별 설치현황 수에서 제외

〈표-3〉국가소유 기관별 적정설치율

번호	지역	대상시설 수 (대상건축물 수)	설치대상수 (A)	단순설치수 (B)	적정설치수 (C)	단 순 설치율(B/A)	적정설치율 (C/A)
1	국토해양부	4	432	278	235	64.4%	54.4%
2	교육과학기술부	8	1,412	991	867	70.2%	61.4%
3	문화체육관광부	31	3,853	2,594	2,268	67.4%	58.9%
합계		43	5,697	3,863	3,370	67.9%	59.2%

조사한 결과 법적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적정설치수는 58,286개, 적정설치율은 54.6%로 나타났다. 〈표-2〉

3. 소유 기관별 적정설치율

국가소유 기관별 적정설치율 현황은 국가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의 적정설치율은 59.2%로 평균 적정설치율 54.6%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3〉

광역시자치체 소유시설 중에서는 역시 대전광역시청이 적정설치율 81.1%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광역시 64.3%, 울산광역시 63.6% 순이었다.

기초자치단체 소유시설 중에



실태조사 현장점검(천안 종합운동장)

서는 경기도 용인시 69.6%로 가장 높은 적정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 안양시 69.1%, 대구광역시 달서구 64.3%, 경기도 부천시 64.2%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지역〉

소유기관	적정설치율
대전광역시	81.1%
경기용인시	69.6%
경기안양시	69.1%
대구달서구	64.3%
인천광역시	64.3%

〈하위 5개 지역〉

소유기관	적정설치율
경기안산시	36.5%
충남천안시	39.9%
경기고양시	42.5%
제주특별자치도	44.4%
전북전주시	45.4%

〈상위 5개 지역〉

지역	설치율
대전광역시	81.1%
울산광역시	63.6%
인천광역시	62.6%
경상남도	60.9%
광주광역시	59.2%

〈하위 5개 지역〉

지역	설치율
강원도	13.6%
충청남도	40.1%
제주특별자치도	44.4%
전라북도	45.4%
충청북도	48.0%

〈상위 5개 지역〉

편의시설 종류	적정설치율
승강기	81.5%
휠체어리프트	77.0%
주출입구접근로	75.4%
복도/통로	72.9%
출입구(문), 대변기(남)	72.5%

〈하위 5개 지역〉

편의시설 종류	적정설치율
임산부휴게시설	2.7%
유도 및 안내설비	5.0%
좌식배구지주/골볼골대	9.4%
관람석	16.3%
안내 및 수화통역서비스	23.0%

〈상위 5개 지역〉

유형	적정설치율
카누장	73.1%
사격장	66.3%
생활체육관	65.3%
수영장	65.2%
빙상장	64.2%

〈하위 5개 지역〉

유형	적정설치율
전천후에이트볼장	35.1%
국궁장	36.0%
씨름장	37.1%
테니스장	43.7%
승마장	44.4%

16개 체육시설 소재시·도별 적정설치율을 보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시설이 8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울산광역시 63.6%, 인천광역시 62.6% 순으로 나타났다.

편의시설 종류별 적정설치율은 승강기 81.5%, 휠체어리프트(W/L) 77.0%, 주출입구접근로 75.4%, 복도/통로 72.9%로 높게 나왔다. 그러나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27.9%, 유도 및 안내설비 5%, 장애인들이 이용가능한 관람석이 16.3%, 수영장의 입수보조시설은 32.7%,

실내체육관의 좌식배구 지주대 및 시각장애인 골볼골대 구비는 9.4%의 아주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21개 체육시설 유형별 적정설치율을 보면, 카누장 7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격장 66.3%, 생활체육관 65.3%과 수영장 65.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간이운동장은 공공체육시설 실태조사에서는 시·도별 표본조사로 221개소만 조사하여 분석도 별도로 하여 전체 설치율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34개 체육시설 소유기관별 설치율현황

구분	적정 설치수	부적정 설치수	미설치수	비해당수	단순설치	대상합계	총계	적정 설치율	부적정 설치율	미설치율	비해당율	단순 설치율	총계	대상 시설수	순위
경기부천시	1,328	385	355	5,932	1,713	2,068	8,000	64.2%	18.6%	17.2%	74.2%	82.8%	100%	25	6
경기안산시	1,247	210	1,961	4,262	1,457	3,418	7,680	36.5%	6.1%	57.4%	55.5%	42.6%	100%	24	34
경기고양시	2,146	139	2,769	5,186	2,285	5,054	10,240	42.5%	2.8%	54.8%	50.6%	45.3%	100%	32	32
경기남양주시	1,223	123	864	2,270	1,346	2,210	4,480	55.3%	5.6%	39.1%	50.7%	60.9%	100%	14	18
경기용인시	816	65	292	1,707	881	1,173	2,880	69.6%	5.5%	24.9%	59.3%	75.1%	100%	9	2
강원도	-	-	-	-	-	-	-	0.0%	0.0%	0.0%	0.0%	0.0%	0%	0	35
충청북도	335	41	207	697	376	583	1,280	57.5%	7.0%	35.5%	54.5%	64.5%	100%	4	15
충북청주시	1,030	200	1,028	2,542	1,230	2,258	4,800	45.6%	8.9%	45.5%	53.0%	54.5%	100%	15	29
충청남도	-	-	-	-	-	-	-	0.0%	0.0%	0.0%	0.0%	0.0%	0%	0	35
충남천안시	1,751	686	1,954	10,649	2,437	4,391	15,040	39.9%	15.6%	44.5%	70.8%	55.5%	100%	47	33
전라북도	400	83	392	1,045	483	875	1,920	45.7%	9.5%	44.8%	54.4%	55.2%	100%	6	28
전북전주시	1,280	235	1,307	3,258	1,515	2,822	6,080	45.4%	8.3%	46.3%	53.6%	53.7%	100%	19	30
전라남도	327	51	257	645	378	635	1,280	51.5%	8.0%	40.5%	50.4%	59.5%	100%	4	25
경상북도	-	-	-	-	-	-	-	0.0%	0.0%	0.0%	0.0%	0.0%	0%	0	35
경북포항시	647	86	512	2,915	733	1,245	4,160	52.0%	6.9%	41.1%	70.1%	58.9%	100%	13	24
경상남도	-	-	-	-	-	-	-	0.0%	0.0%	0.0%	0.0%	0.0%	0%	0	35
경남창원시	4,161	468	2,208	17,163	4,629	6,837	24,000	60.9%	6.8%	32.3%	71.5%	67.7%	100%	75	8
제주특별자치도	4,284	325	5,039	14,032	4,609	9,648	23,680	44.4%	3.4%	52.2%	59.3%	47.8%	100%	74	31
계	58,286	9,317	39,173	173,544	67,603	106,776	280,320	54.6%	8.7%	36.7%	61.9%	63.3%	100%	876	

※ 체육시설을 소유하지 않은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는 소유기관수에서 제외.

장애 극복하고 대학 ‘수석졸업’한 장애인 화제

지체1급 고강민 씨…“장애에 좌절안해...공부할 수 있어 행복”



지난 15일 계명대 학위수여식에서 공과대학 수석으로 졸업한 지체장애 1급 고강민(23)씨.

모두가 스무 살을 넘기기 힘들 줄 알았다. 병원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했었다. 지금까지 살아있었던 게 기적이라고 한다. 그런 그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다. 주인공은 지난달 15일(화) 계

명대 학위수여식에서 공과대를 수석 졸업한 고강민(23·컴퓨터공학과)씨. 고씨는 근이양증을 앓고 있는 1급 지체장애인이다. 근이양증은 골격근이 변성되고 위축돼 심하면 온 몸을 가눌 수 없다. 특별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보통 20

세를 넘기기 어려운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다. 간혹 40대를 넘기기도 하지만 극히 예외적이다.

고씨가 근이양증 판정을 받은 건 초등학교 6학년 때이다. 갑자기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고, 학교에서 쓰러지는 일이 잦아지면서 대학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았던 것. 그때부터 그는 휠체어신세를 져야 했다. 증상이 악화되면서 몸조차 가누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타고난 밝은 성격 덕분에 일까. 고 씨는 “남들은 불편한 제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전 어릴 때부터 단 한번도 낙심하거나 슬퍼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고 감사했지요”라고 회상한다.

그의 말처럼 고씨는 중고교 내내 전교에서 다섯 손가락을 벗어난 적이 없다. 공부가 재미있었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자신의 처지가 오히려 행복하기도 했다.

다리가 완전히 마비된 중학교 시절 그를 더 행복하게 했던 것은 컴퓨터였다.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게 중학 1학년 때이다.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은 대학교 들어와서 땀지만 이 건 실력 때문이 아니라 학력 제한 때문이었다. 그래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게 됐고, 대학에 들어와서도 4년 내내 전면장학금을 받았다.

고씨는 근육에 힘이 빠져 손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남들이 10개의 단어를 쓸 때 2~3

단어나 겨우 적을 수 있는 정도다. 그런 그가 단과대 수석 졸업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수업 집중력’ 때문이다. “사실 저는 남들처럼 필기를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대신 수업시간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죠. 정말 중요하다고 싶은 것만 공책에 적어놓고요.”

실제 그가 보여준 필기노트는 간단했다. 연한 글씨로 주요 개념만 적어놓은 수준이었다. “수업시간에 강조한 내용은 교재와 인터넷에 공개된 강의노트에서 관련 부분을 찾아 그날 그날 보충 학습했다”고 말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의문점이 풀릴 때까지 책을 접지 않았다.

학부 시절 고 씨에게 3과목을 강의했다는 주 교수는 “수업 30분 전부터 강의실에 들어와 그날 배운 내용을 예측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수업이 끝나자마자 손을 들어 질문하는 학생이었다”며 “시험 답안을 채점해 보면 ‘필기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말한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적었을까’

의아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4년 내내 고씨의 휠체어를 끌어주며 같이 수업을 들었던 곽준영(25)씨는 “물론 공부벌레죠. 공부에 욕심도 무지 많아요. 근데 강민이 얼굴을 한번 보세요. 누굴 탓하지 않아요. 늘 웃죠. 그래서 우리들이 참 많이 배웠어요”라고 말했다.

고씨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 관계자는 “지금은 다리만 마비됐지만, 앞으로 손과 발을 쓰기가 점점 불편해질 겁니다. 입도 움직이기가 힘들 거고요. 그러다 결국엔 몸 안쪽까지 마비가 올 수 있겠죠” 그래도 고씨는 이번엔 대학원에 진학한다. “보다 체계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고 그는 말했다. 그의 꿈은 그냥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아니다. “세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내 꿈”이라고 말했다.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잃는다. 어려움은 있어도 좌절은 없다(Easy come, Easy go)’ 고씨의 휴대전화 초기화면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있다.

“시각장애 때문에 좌절한 적 없어요”

연세대 최성원 교수…시각 장애 극복, 최우수 성적 임용

“내가 시각장애인 교수라서 다른 교수님들과 다른 점은 장애 학생들이 하고 싶은 말을 느끼므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달 1일(화)자로 연세대 원주캠퍼스 경영학부에 조교수로 임용된 최성원(37) 교수는 1급 시각장애인이다. 장애인 권익 향상에 힘썼던 고(故) 이익섭 사회복지학과 교수에 이어 연세대가 두 번째로 임용한 시각장애인 교수다.

최 교수는 이번 학기에 매주 월요일 대학원생에게 ‘조직행동론’ 과목을 가르치고, 화·목요일에는 학부생에게 ‘조직

행동론’과 ‘조직개발론’을 영어로 강의한다.

연세대 경영학과 93학번인 그는 4년만인 1997년 2월 대학을 졸업한 뒤 연세대 대학원과 텍사스 A&M 대학원에서 각각 석사학위를 받고 지난해 5월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따는 등 쉼 없이 공부에 매진했다.

지난해 가을학기 한국의 여러 대학에서 교수 채용공고가 나자 최 교수는 여러 대학에 지원서를 냈는데, 연대에서 가장 먼저 연락이 왔고 연구 업적 평가와 영어 공개강의 등의

과정을 거쳐 교수로 임용됐다.

연대 원주캠퍼스 윤방섭 교무처장은 4일 “신임교원 공개 채용 때 그 분야에 자격요건을 갖춘 여러 명이 지원했는데 최 교수가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며 “장애를 고려할 것도 없이 월등한 실력으로 임용됐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유도 모르게 시력이 점차 나빠졌고 눈 한 가운데가 잘 보이지 않게 돼 결국 1급 시각장애 판정을 받았다.

그는 시각장애 때문에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다른

아닌 ‘공부 그 자체’였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녹음도서와 컴퓨터 파일을 통해 듣고 또 들으며 공부했다.

최 교수는 “나는 장애를 항상 의식하지만, 장애 때문에 특별히 좌절한 적은 없다”고 했다. 주위에 도움을 준 이들도 많았고 운도 좋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 교수는 “내 목표는 일단 임용 3년차에 있을 재임용 심사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는 것이다”라며 “장기적으로는 학교와 학과에 도움이 되고



이달 1일자로 연세대 원주캠퍼스 경영학부에 조교수로 임용된 최성원(37) 교수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고(故) 이익섭 교수의 뒤를 이어 장애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꿈을 갖고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며 “내가 가진 조그만 재능을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돕는 데 쓸 것”이라고 밝혔다.

진정한 ‘현의 마술사’ 이작 펠먼



현존하는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작 펠먼(Itzhak Perlman)

어느 날,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의 장애인의 날 기념 연주회가 열린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연주를 들으러 공연장에 들어섰고, 다리가 불편해 무대에 나오는 것조차 힘겨워 보이는 그를 우려 반 기대 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박수를 보낸다.

오케스트라의 서곡이 시작되고 이어 바이올린 연주가 시작된다. 그러나 1악장을 채 끝내기도 전에 바이올린 현이 끊기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청중들은 연주자의 교체를 예상한다.

하지만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지휘자에게 계속 연주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세 개의 현으로 네 개의 현에 결코 떨어지지 않는 멋진 연주를 들려준다. 그가 연주를 마쳤을 때 장내는 감동의 도가니에 빠지고 청중들은 일제히 이 바이올리니스트를 향해 경외와 찬사의 기립 박수를 보낸다.

머리를 산발한 채, 세 개의 현마저 끊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울 정도로 열정적으로 활을 그 어대며 수많은 청중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진정한 ‘현의 마술사’. 소아마비라는 장애를 넘어 현존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중 가장 많은 레파토리를 소화했다는 평을 듣고 있는 그의 이름은 바로 이작 펠먼(Itzhak Perlman)이다.

그는 청중이 보내는 찬사에 대한 답례로 이렇게 답한다.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비관과 탄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때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최선을 다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세 개의 현으로 연주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1945년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서 폴란드 출신 이주자이자 음악을 사랑하는 이발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세 살 반 무렵 우연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하이페츠(Jascha Heifetz, 러시아 출신의 미국 바이올린 연주자)의 연주를 들었는데 이것이 바이올린에 대한 흥미를 촉발시켜 결국 연주자의 길을 걷기로 마음먹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펠먼은 네 살이 되자 소아마비에 걸려 결국 하반신이 마비가

을 상대로 파티 음악을 연주하게 했는데 펠먼은 그의 쇼인 ‘Caravan of Stars’에서 연주를 하게 된다. 펠먼과 그의 부모는 뉴욕에 정착하여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펠먼은 에드 설리번 쇼에서의 경험 이후 연주회 일상의 그 어떤 것도 자신을 방해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이후 계속 뉴욕에 머물면서 미국 이스라엘 재단이 주는 장학금의 도움으로 줄리어드 스쿨에 입학한다.

당시 줄리어드에는 미국에서 가장 고명한 바이올린 교육자인 이반 갈라미언(Ivan Galamian)과 도로시 딜레이(Dorothy Delay)가 있었다. 펠먼이 이들의

은 50여개 도시에서 연주회를 가져 놀라운 젊은 재능이 이미지를 각인시킨다.

또한 그는 RCA레코드사와 녹음하기 시작했으며, EMI, 소니, 텔렉 등과의 음반계약을 맺었다. 그 후 30년 동안 녹음한 그의 음반은 베토벤, 브람스, 시벨리우스, 멘델스존, 베르그의 콘체르토와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트리오 등 셀 수 없이 많다. 투어 스케줄을 짰고, 펠먼은 50여개 도시에서 연주회를 가져 놀라운 젊은 재능이 이미지를 각인시킨다.

1965년 그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돌아와 8회의 연주회를 가진다. 재능 있는 젊은이의 자격으로 고국을 떠났던 그가 이제

미국을 위해 공헌한 이민자에게 주는 자유의 메달(Medal of Liberty)을 수여하였다.

현존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중 첫손에 꼽히는 펠먼은 설명이 필요 없는 최고의 테크닉에 변화 있는 따뜻한 음색, 고전은 물론 난해한 현대 곡까지 낯설지 않은 친근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제를 전달해주는 천재적 직관력으로 전 세계 음악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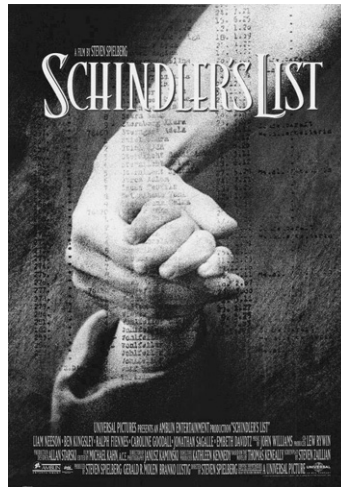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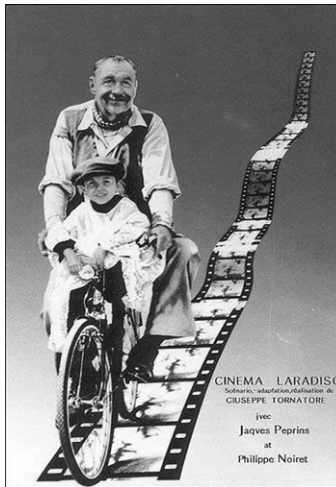
1945년생인 Itzhak Perlman(이작 펠먼). 그의 나이 이제 60을 훌쩍 넘어버렸다. 젊은 시절의 당당함 보다는 이제 다소 힘겨워 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때로는 휠체어에서, 때로는 의자를 하고 그는 이런 모습으로 60평생 동안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준다. 수려한 이목구비나 웅장한 외양도 지니지 못했으나, 온 세계를 통틀어 ‘이시대의 가장 소중한 바이올리니스트’로 불리는 보석 같은 사람, 이작 펠먼. 그는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가 불편하다. 연주자로서 다리가 불편하다는 것은 안타까운 핸디캡이다.

그러나 그는 이 핸디캡을 훌륭하게 극복하고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더불어, 그는 신체장애인으로서는 얻는 프리미엄은 단연코 거절한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자신의 연주가 연주 그 자체로 평가되기만을 원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내 연주만을 갖고 나를 평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두 번의 부자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청중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진정한 ‘현의 마술사’ 이작 펠먼(Itzhak Perlman)의 연주 모습.



이작 펠먼이 참여한 영화들(왼쪽부터 ‘여인의 향기’, ‘시네마천국’, ‘쉘러리스트’)

되고 다리를 영구히 못쓰게 되어 목발에 의지하게 된다. 1년간 회복기를 거친 뒤에도 바이올린에 대한 그의 열정은 식지 않는 상태였으며 여전히 하이페츠를 우상으로 신봉하고 있었다. 집시 바이올리니스트에게 몇 차례 배웠으나 별로 신통하지 않았고 그의 아버지는 그를 위해 텔아비브 뮤직 아카데미에서 레슨을 받도록 하였고 결국 텔아비브 음악원에 입학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둔다.

열 살이 되던 무렵에는 이미 베테랑연주자처럼 스탠더드 협주곡 레파토리를 배워 능숙히 연주함에 있어 신체장애를 전혀 부담으로 느낄 수 없었다고 믿고 있다. 13세 되던 해에 펠먼은 미국 TV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해 에드 설리번 쇼에 출연한다. 당시 이 쇼는 재능 있는 어린 이들로 하여금 전국을 돌며 저녁을 먹고 와인을 마시는 관객

조합된 기술로부터 얻어낼 수 있었던 혜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1963년 3월 펠먼은 존 바넷이 이끄는 내셔널 오케스트랄 어소시에이션과 함께 비에나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F#단조를 협연함으로써 카네기 홀 무대에 공식적으로 데뷔한다. 하지만 이 연주회에 대한 리뷰는 그 어디에도 실리지 못했는데 이는 당시 한창이던 신문 인쇄업체의 파업 때문이었다.

이듬해 펠먼은 리벤트리트(Leventritt) 기념상을 수상하고 미국의 최고 오케스트라와 일련의 연주회를 가지기로 계약한다. 다음해 펠먼은 프로듀서 솔 후록(Sol Hurok)에게 발탁되고 솔 후록은 펠먼을 미국 전체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의 연주회 일정을 소화한다. 솔 후록은 젊은 연주가가 소화해내기엔 딱딱한 투어 스케줄을 짠지만, 펠먼

비루투우소의 자격으로 돌아온 것이다 텔아비브에 있는 한 오디토리움에서 이스라엘 필과 협연했고 청중은 귀청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환호로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같은 해 말 펠먼은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윌리엄 스타인버그(Hans Wilhelm Steinberg, 독일 출신의 미국 지휘자)가 지휘하는 뉴욕필과 함께 필하모닉 홀 무대에 출연한다. 펠먼은 이후 미국에서 지속적인 연주회를 가지면서 성공적으로 연주와 녹음을 이루어 갔다.

1970년대 그의 명성은 대단하여 TV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출연하였고, 세서미 스트리트, 투나잇 쇼, 데이빗 레터맨과 공영방송 PBS의 특집에 출연하였다. 또한 백악관 연주회에서도 자주 연주하였으며, 특히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 많은 연주를 하였다. 1986년 레이건은 그에게

서울시, 7·9급 공무원시험 경쟁률 77.5대1

장애인 45.6대1...선발 인원 증가로 경쟁률 ↓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이하 서울시)는 올해 1천192명을 선발하는 시 공무원 임용시험의 원서를 접수한 결과, 9만2천385명이 신청해 평균 7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지난 8일(화) 밝혔다.

작년에는 569명 선발에 4천585명이 신청해 15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올해 선발 인원이 늘면서 경쟁률이 낮아졌다.

모집단위별로는 1명을 선발하는 농업 9급에 406명이 신청해 406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

했으며, 가장 많은 547명을 뽑는 일반행정 9급에는 5만1천334명이 지원해 93.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방세 9급은 219.4대 1, 행정 7급은 84.3대 1, 건축 9급은 51.5대 1 등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51명을 선발하는 장애인 구분 모집에는 2천326명이 신청해 4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저소득층 구분 모집에는 20명 선발에 463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23.2대 1이었다.

응시자 연령은 20대가 5만8천

503명으로 전체의 63.3%를 차지했으며, 30대 33.9%(3만1천358명), 40대 2.2%(1천997명), 10대 0.4%(337명), 50대 0.2%(190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최고령 응시자는 일반행정 9급에 신청한 만 57세(1954년생) 수험생이었다.

서울시는 응시 분야별로 나눠 4월23일과 6월11일 필기시험을, 6월27일과 8월4~12일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7월8일, 8월2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전시청, 장애인이 일하는 '건강카페' 오픈

장애인 5명 채용...연간 임대료 700만원



대전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카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동될 30.5㎡ 규모의 '건강카페'가 지난 2월 23일(수) 대전시 청사 1층 로비에 문을 열었다.

건강카페는 지난해 10월 염홍철 시장이 일본 삿포로시를 방문했을 때 시청 로비에 설치된 '장애인이 일하는 건강카페'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추진됐다.

운영은 지난 1월 공개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다원(대표 정운석)이 맡고 있으며 연간 임대료는 700만원이다.

특히 지적장애인 2명, 자폐 장애인 2명, 정신장애인 1명 등 총 5명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 사회적 기업 1호인 '한울타리'(대표 정운석)에서 장애인들이 만든 우리 밀 빵, 전통차 등을 판매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청사 건강카페 운영상황을 검토한 후 시 산하 공공시설로도 확대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출처-에이블뉴스〉

'제3회 장애인문학공모전' 진행

인천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정용충, 이하 인천중구장복)이 장애인 지역 사회 자립과 통합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3회 장애인문학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전에는 전국의 장애인 및 장애가족, 통합학급에 재학 중인 비장애 학생까지 참여 가능하다. 내용은 시 또는 수필 형식으로 장애와 관련 있으면 된다. 분량은 시의 경우 12포인트 A4용지 2장 이내, 수필은 12포인트 A4용지 4장 이내로 작성해야 한다.

공모 희망자는 오는 21일(월)부터 4월 8일까지 인천중구장복 홈페이지(www.jgwelfare.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응모작품, 장애인등록증(가족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이메일(ans1121@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제3회 장애인문학공모전' 포스터.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입상작은 4월 15일 발표되며, 시상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진행된다. 공모 입상자에게는 총 300만원 상당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한편 인천중구장복은 5월 중 입상작으로 '작품집'을 제작할 계획이다.

〈문의: 인천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팀 ☎032)880-2420, 2422〉

부산직업능력개발원, '맞춤 나눔 훈련생' 모집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이 '금형 CAD/CAM 나눔 맞춤 훈련생'을 모집한다.

나눔 맞춤 훈련은 부산지역의 (주)일진델타, (주)양정, (주)대호비투비 기업체와 경남지역의 (주)아스픽, (주)화남정밀, 영동기업, 명진정밀 등 총 7개의 금형사업장과 연계해 실시된다. 훈련분야는 금형 CAD/CAM이며, 7개월 동안 훈련을 받는다.

희망자는 오는 23일(수)까지 장애인공단 홈페이지(<http://www.kead.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

드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ct2@kead.or.kr)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나눔 맞춤 훈련'은 각 개발원과 사업주가 훈련 직종, 수준, 방법 등에 대해 약정을 체결 한 후 기업의 실제 훈련수요에 맞게 훈련생을 모집해 직업훈련을 실시한 후 약정업체가 수료생을 우선 채용하는 직업훈련과정을 말한다.

〈문의: 부산직업능력개발원 재활상담팀 ☎051)726-0321〉

광교신도시에 2013년 장애인 특수학교 개교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이 공동 시행하고 있는 광교신도시에 2013년 3월 수원권역에서는 처음으로 공립 장애인 특수학교가 개교한다.

경기도교육청은 7일 "수원권역 장애학생들의 교육 편의 등을 위해 광교신도시에 장애인 학교인 '수원특수학교(가칭)'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광교신도시 내 아주대학교 인

근에 189억8천여만원을 들여 설립되는 수원특수학교는 부지면적 1천500㎡, 건축 연면적 1만~1만4천㎡ 규모로 건립되며, 36학급으로 편성된다.

이 학교에서는 수원 인근 지역 정신지체 및 시각장애 학생들이 입학할 예정이다. 도는 오는 10월말까지 설계 등을 마무리한 뒤 공사에 들어가 2013년 3월1일 특수학교를 개교할 계

획이다.

경기도내에는 현재 공립 6개, 사립 20개 등 모두 26개의 장애인 특수학교가 운영 중이며, 이달 초 용인에 사립 특수학교인 용인강남학교가 개교한 상태다.

경기남부지역 공립 장애인 특수학교는 성남에 2곳, 안양과 부천에 각 1곳씩 운영되고 있고, 수원에는 현재 사립 장애인 특수학교 2곳만 운영되고 있다.

충북, '중증 장애인 일감 지원센터' 운영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는 도내 8개 시·군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중증 장애인들이 일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중증 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을 지난 4일(금) 밝혔다.

지원센터는 1~2급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올해 연말까지 매주 5일간 운영되며 근육발달 훈련, 작업기능 훈련, 기초체력단련

을 시행하는 동시에 지원센터 인근의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가내수공업체 등의 협조를 얻어 중증 장애인에게 일감을 주게 된다.

"장애 유형별·육구별 서비스를 개발, 지원하고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며 "이들 지원센터를 통해 올해 3천600여명의 중증 장애인이 일감을 얻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동주민센터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이하 시)는 동주민센터의 디자인을 장애유무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지난 9일(수) 밝혔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 공간 및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을 뜻한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디자인 서울가이드라인’과 ‘서울형 유니버설 디자인 기준’, ‘통폐합 동사무소 리모델링 디자인가이드라인’ 등의 포괄적 개념을 준

수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매뉴얼을 개발했다.

매뉴얼은 진입로 및 출입문, 동선을 고려한 공간 구성, 불필요한 지장물, 가구, 기타 장식품에 대한 가이드라인, 업무공간과 민원대기공간과의 관계설정, 안내사인 등을 모든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됐다.

또한 설계자나 실제 민원실을 만드는 공무원이 알아보기 쉽도록 백서 형식으로 제작했다.

시는 현재 장애인 및 노약자 거주 비율이 높은 성산2동을 시범적용지로 정하고 매뉴얼의 일

부 내용을 적용,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상태다.

앞으로 시는 25개 자치구에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며, 동주민센터에 대한 디자인심의 시 유니버설 디자인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문과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모든 대상이 이용하는 공공의 공간 뿐 아니라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설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에 있으며 오는 5월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에이블뉴스〉

충남교육청, 특수교육 보조인력 증강

충남도교육청은 새 학기부터 중증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 보조인력 424명을 배치한다고 지난 1일(화) 밝혔다.

올해 배치되는 특수교육 보조인력은 유급 특수교육 보조원 288명, 공익요원 24명, 자활후견기관 지원 특수교육보조원 22명, 학습보조인턴교사 90명 등이다.

특히 올해는 특수교사 자격이 있는 학습보조 인턴교

사를 특수교육 보조인력으로 배치해 중증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더욱 보장될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급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기본급 인상, 명절휴가 보전금 등이 지원돼 경력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5.2~11.7% 임금이 올랐다”며 “앞으로도 보조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 교육청 산하 매점·자판기 운영 우선권 부여

교육위, 노인·장애인·유공자 혜택 조례안 의결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산하에 설치된 매점과 자판기의 운영을 장애인 등에게 우선권을 주는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시 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시켜 본회의로 넘겼다고 지난 9일(수)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교육청 산하에 설치된 매점과 자판기를 장애인과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우선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이 오는 17일(목)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 교육청 산하 기관(공립학교 포함)은 매점과 자동판매기 운영 계약을 할 때 장애인과 노인 등에게 우선권을 줘야 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희곤 위원장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최초로 발의된 이 조례안에는 공공기관이 책임져야 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의 의무를 다하라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경남, 장애아동 놀이체험실 ‘아이도담터’ 개관



‘아이도담터’ 개관식 테이프커팅 장면. ©경상남도

경남지역 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한 유아놀이체험실인 ‘아이도담터’가 개관했다.

창원시 봉곡동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위치한 아이도담터는 건강과 탐구, 사회 등 3개 영역 15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규모는 166㎡, 연간 이용 예상인원은 1만7천200명이다.

‘아이도담터’라는 이름은 ‘아이들이 탐스럽고 아담하게 도드라지는 터전’의 줄임말로, 장애아동들이 다양한 놀이체험을 통해 재활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박정미 경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정미)은 “각 영역별 주제에 따른 통합적 접근을 위한 놀이 체험공간으로, 장애아동의 다양한 감각과 전인적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밝혔다.

개관식에 참석한 김두관 지사는 “놀이가 인간의 사고를 가장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만큼 아이도담터를 통해 장애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 중증장애인 바깥나들이 지원 확대

1,400명 지원...월 2만5천원 교통비 지급

제주시는 중증장애인의 바깥나들이를 위한 교통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6일(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4억2천만원을 확보해 1급 장애인과 2급 신장장애인 및 2급 시각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1인당 월 2만5천원의 교통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천204명에게 지급한 교통비 3억6천만원에 비해 16.7% 증가한 것으로, 올해 약 1천400명의 중증장애인에게 교통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단, 차량소유자나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 1999년 이 시책을 처음 도입해 2009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1급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3만6천원의 교통이용권을, 그외 1급 중증장애인들에게 월 2만원의 교통이용권을 각각 지급했다.

지난해부터는 형평성을 고



서울대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증장애인 부부.

려해 중증장애인 1인당 월 2만5천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단일화했다.

제주시 김성구 장애인복지담당관은 “중증장애인들의 이동

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병원 이용과 시장 보기 등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에이블뉴스〉



당정, 장애인 창업자금 3% 금리로 대출

정부와 한나라당은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직업 안정을 위해 연 3% 금리로 창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정책위 산하 장애인복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이정선 의원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3월 10일(목)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가운데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으로 15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기획재정부는 특히 다른 대출 금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연 4%의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한나라당이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연 3% 고정 금리 적용을 주장, 이를 관철시켰다.

대상은 자영업을 시작하려는 장애인이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로부터 1년이 지난 사업주나 이미 창업자금을 융자받아 원리금 상환 중인 장애인, 법인 형태의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인당 5천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융자받을 수 있고, 기간은 2년 거치 5년 상환이다.

용도는 시설·장비 구입비, 영업장소 매입비 또는 임차보증금, 원자재 및 상품구입비, 개인택시면허 양수비용 등이며 주류도매, 담배도매, 금융, 골프장, 무도장, 주점,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식당업 등은 제외된다.

이 의원은 “장애인에게 3% 금리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공정사회 기조에 부합한다”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소외계층에게도 3% 금리 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장애인복지 TF 부단장 이정선 의원.

장애인공단, ‘2011년 사업설명회’ 개최 변경된 제도·사업 소개…현장 목소리 수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이하 공단)은 3월 8일(화)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2011 공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장애인 고객 및 관련 현장 실무자 1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 공단은 2011년 변경된 장애인고용제도와 고

용촉진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기업지원사업 등 공단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장애인표준사업장 법인세·소득세 감면제도를 비롯한 주요 기업지원서비스와 취업이 어

러운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 새롭게 도입하는 사업 및 강화하는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한편, 올해 9월 열리는 ‘2011 서울 제8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공단은 “앞으로 사업 설명회를 매년 개최해 장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 8일 개최한 ‘2011년 사업설명회’ 모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 고객과 현장 실무자의 의견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견을 수렴하고 이를 공단 사 밝혔다.

● 고용정보

	업종	업 체 명	근무지	연령	성별	근무내용	급여	보험	연락처	담당자
1	생산직	정립전자	서울시 광진구	55세이하	무관	PCB조립업무	월 902,880원	4대보험	02-2289-4322	손가람
2	생산직	비클시스템	서울기 관악구	55세이하	여	자동차부품조립	월 902,880원	4대보험	02-2289-4322	손가람
3	경비직	인덕종합관리	서울 전역	65세이하	남	아파트경비직	월 11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손가람
4	서비스직	나라개발시스템	서울 전역	65세이하	남	소독원	월 14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손가람
5	미화직	나라개발시스템	서울 전역	68세이하	여	아파트미화직	월 8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손가람
6	미화직	유전실업	서울 전역	68세이하	여	건물 및 은행 미화	월 8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한은희
7	생산직	숲 디자인	서울 성북구	40대이하	무관	나염 프린트	월 10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한은희
8	생산직	씨피엘	경기도 안산시	40대 이하	무관	제품검사 및 사출	월 902,880원	4대보험	02-2289-4321	한은희
9	전문직	아이팩이엔지	경기도 화성	30대 이하	남	캐드 (경력필수)	월 10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한은희

‘한·중·일 장애인미술 교류전’ 개최 협약

4월 13일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려

한국장애인미술협회는 지난 달 24일(목) 국회 귀빈 식당에서 ‘2011 한중일 장애인미술 교류전’ 개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 한국장애인미술협회 김충현 회장, 장애인개발원 이용홍 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이종성 과장, 중국장애인연합회 소속 중국장애인잡지사 장화용 총 부편집장, 일본 채리티협회 오오헤 나오키 상무이사 등 2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정현 의원은 축사에서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은 장애

유·무를 떠나 모두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교류전은 아시아, 전 세계를 넘어 장애인미술의 발전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홍 원장도 “세 나라의 장애인작가들이 모두 참가하여 더욱 빛이 난다”며 “이러한 교류전이 지속되어 장애인작가들이 설 수 있는 무대가 넓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장화용 총 부편집장은 “이러한 행사는 무엇보다 의미 있는 사업”이며 “세 나라의 장애인이 문화적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

록 각 나라의 대표님들이 문화적 공헌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오헤 나오키 상무이사는 “일본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아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며 “장애인을 위해 각 나라의 힘을 보태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1 한중일 장애인미술 교류전’은 오는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 분관에서 서울전시회를 개최된다. 또한 5월 18일부터 23일까



중국장애인잡지사 장화용 총 부편집장(좌)과 한국장애인미술협회 김충현 회장(중), 일본 채리티협회 오오헤 나오키 상무이사(우)가 협약서에 싸인을 한 후 악수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지 중국 상해와 일본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특히 서양화, 동양화, 서예, 공

예를 포함한 한중일 장애인작가들의 작품 200여점이 전시된다.

〈출처-에이블뉴스〉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상영작 확정

총 27편 선정...타이틀 지난해와 동일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집행위원회.

올해로 9번째를 맞는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의 상영작이 확정됐다.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는 공모에 접수한 50여편의 작품 중 심사를 거쳐 총 27개의 상영작품을 선정했다고 지난 11일(금)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개막작으로는

의 몸은 몇 등급입니까(연출: 이경민), 초청작 ‘빈곤의 얼굴들(연출: 장호경)’, 추천작 ‘임씨의 택시(연출: 박재웅)’가 선을 보인다.

지난해 신진감독 사전제작 지원을 받은 ‘시설을 탈출해서 자립생활 하고 있는데...(연출: 한정열)’, ‘내 나이는 서른입니

다.(연출: 김수미)’도 관객들과 만난다. 한편 집행위원회는 타이틀을 지난해와 동일한 ‘차별에 저항하라’, 매년 바뀌는 슬로건은 경제적·사회적으로 힘든 상황을 의지와 신념을 이어가자는 의미로 ‘이어달리기’로 확정했다. 영화제 상징 색은 초록색과 옥색으로 봄의 시작, 희망을 뜻한다.

‘제9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오는 4월 7일(목)부터 9일(토)까지 대학로 CGV(무비플라주)에서 열린다.

‘2011년 장애인 문화예술사업’ 공모

ARKO, 오는 24일까지 신청서 접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오광수, 이하 ARKO)가 오는 24일(목)까지 ‘2011년도 장애인 문화예술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국고에서 지원되는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과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창작 및 표현 활동 지원 사업’으로 나뉜다.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집중육성 사업, 장애인 문화향수 지원, 풀뿌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등 4개 부문이다.

‘장애인 창작 및 표현 활동 지원사업’은 장애 예술가(단체) 창작활동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 활동 및 발간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역량강화 지원 등 3개 부문이다.

장애인 문화예술전문 법인등록단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예술가 또는 단체 등은 오는 24일까지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http://arko.artskorea.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상세 내용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rko.or.kr>)의 ‘지원사업공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문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복지부 ☎02)760-4554〉

문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 추진

‘도서관법 개정안’ 정부입법 예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이하 문광부)가 3월 내에 ‘도서관법 개정’을 통한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을 추진한다.

문광부 정병국 장관은 지난 달 24일(목) 도서관 및 독서 정책 대국민 업무보고에서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직원 10명에 예산이 28억원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원센터’로는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정 장관은 “현재 시각장애인에게만 제공되는 장애인 도서대여 무료 우편 서비스를 청각·중증 지체 장애인까지 확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문광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립장애인도서관 설립을 위해 오는 3월 도서관법 관련 조항을 보완해 도서관법개정안 정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도서대여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보통우

편에서 등기우편으로의 변경이 추진되고, 방문반송 서비스도 추가된다. 청각·지체장애인을 위해서는 유형 및 정도에 따라 무료·감액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청각장애인을 위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일정 시설에서 방송 및 영화 등의 소리를 문자 및 수화로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특례조항이 신설될 예정이다. 여기에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과 도서관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도서관법 개정도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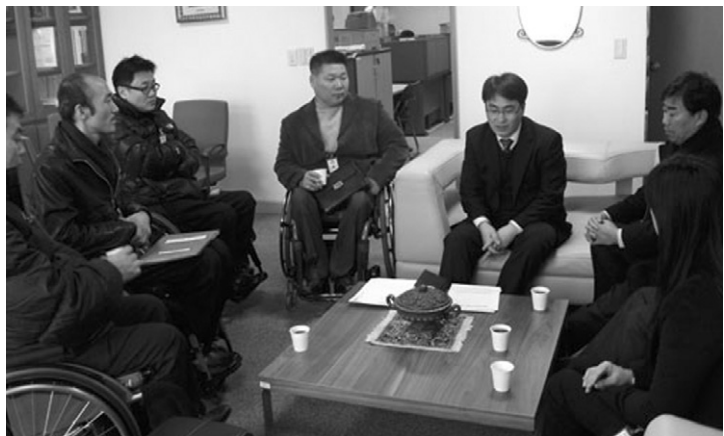
올해 장애인용 대체자료 제작 및 보급을 3000종(14억원)으로 확대해 장애인포털을 통해 검색 및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도서관 대체자료 종합목록DB를 19만 건까지 구축하는 등 장애인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서비스도 강화된다.

이 밖에도 공공도서관 16개관(13억원)에 장애인 보조기기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도 늘어난다.

〈출처-에이블뉴스〉

“스포츠토토, 레저세 부과되면 장애인 체육 몰락”

장애인체육인, 스포츠토토 레저세 부과 반대 결의



장애인체육 선수·지도자 대표들이 지난달 10일 국회를 방문,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에게 탄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스포츠토토에 레저세가 부과되면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한 장애인 체육은 몰락할 수 있다”

장애인 체육계가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스포츠토토)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장애인체육인들은 지난달 15일(화) ‘제8회 전국동계장애인체

전’의 개막식이 열린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스포츠토토 수익금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김임연 대한장애인올림픽 선수위원장과 유병훈(육상)이 대표로 낭독한 결의문에서 “수익금이 지방세로 편입되면 장애인 체육 재정의 60%가

줄어 장애인 생활 체육 보급과 선수 훈련 수준 저하 등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선심성 지방세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장애인체육인들은 또한 지난달 10일(목) 국회를 방문,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에게 체육진흥투표권 지방세 편입에 대한 장애인체육계의 입장이 담긴 “탄원서”를 전달한 바 있다.

장애인체육인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7월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이다. 김의원의 개정안에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매출의 10%를 레저세로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장애인체육인들은 이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장애인 체육이 붕괴될 수도 있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장애인 체육계는 이번 개정안

이 강행되면 갖 피어난 장애인 체육이 다시 5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 장애인 체육은 지난 2005년 7월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과 그해 11월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으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때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정부 업무 부처가 바뀌면서 장애인 체육활동이 재활(복지)영역에서(특수)학교에서의 교과목으로 시행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를 이뤄낸 데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는 것이 장애인체육인들의 입장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스포츠토토를 통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장애인 체육계에 약 279억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60%’가 감소돼 지원액은 111억원대로 줄게 된다. 그동안 기금은 시도장애인 체육 지원. 장

애인종합체육시설운영 및 건립 지원 비용 등에 쓰여왔다. 중장기적으로 우수선수 연금지급 중단. 선수 훈련수준 저하. 장애인 이용 체육시설 확보 불가 등의 부작용이 예상돼 이제 막 싹을 틔운 국내 장애인 체육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특히 생활체육지도자. 전임지도자 등 장애인 체육 관련자의 생계도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돼 장애인 부문에서 엄청난 고용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성이 커진다.

장애인 체육계는 “복지국가 건설 차원에서라도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장애인 체육인에게 심각한 상실감을 줄 수 있다”며 “상업성이 전무한 장애인 체육계는 국고와 국민체육진흥기금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체육의 후퇴 정도가 아니라 폐멸되는 수준이 예상된다”고 걱정했다.

전국장애인동계체전 폐막...서울 종합우승

전승 우승 경남 휠체어컬링팀 ‘MVP’ 영예 안아



제8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의 MVP를 차지한 경상남도 휠체어컬링팀의 시상식 장면.

‘제8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지난달 18일(금) 서울 동천학교 빙상장에서 폐회식을 갖고 나흘간의 일정을 마쳤다

종합 점수제를 통해 순위를 집계한 결과 서울이 13,083점으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대회에서 4위를 차지했던 인천은 빙상과 스키에서 고른 활약을 보이며 11,256점으로 준우승을 차지했다.

대회 MVP(최우수선수)의 영

광은 ‘전승’ 금메달을 차지한 경남 휠체어컬링팀에게 돌아갔다.

경남은 현직 국가대표 팀으로 지난해 결승에서 ‘뱅크버 은메달’ 강원과 손에 땀을 쥐는 경기를 펼치며 아쉽게 은메달에 머물렀었다. 이후 꾸준한 경기력을 보이며 국가대표로 선발됐고, 이번 체전에서 전승 우승을 거두며 새로운 강자로 거듭났다.

남자 크로스컨트리 좌식부문 1km와 3k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유병훈(경기)을 비롯해, 김판(서울), 김송이(인천), 김현지(경기), 박승태(강원) 등이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이밖에 ‘격려상’은 대구광역시 수상했고, 전년에 비해 가장 많은 순위 향상을 이룬 선수단에게 수여하는 ‘성취상’은 충청남도 돌아갔다. ‘모범선수단상’은 경상남도가, ‘지도자상’은 인천광역시 선수단 장승규 지도자(빙상)가 차지했다.

문광부, ‘2011년 체육정책 보고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이하 문광부)는 지난 달 24일(목)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소재한 올림픽파크텔에서 ‘2011년 체육정책 대국민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 체육 활동에 대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장애인 대상 생활체육 교실 운영(245개), 종목별 생활체육 축제(32개),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생활체육대회(38개) 등에 14억여원이 투입된다.

장애 청소년 체육교실(127개), 체육캠프(16개), 장애학생 어울림캠프(5개) 등을 포함한 장애청소년 대상 체육활동에 9억여원이 지원

된다. 또한 장애인 스포츠용품 지원 및 장애인 스포츠백과 제작·보급 사업과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서비스 강화 사업에 12억여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체계적인 장애인생활체육 지도를 위한 ‘생활체육 전문지도자 배치 사업’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다양한 스포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스포츠 바우처’ 예산을 지난해 60억원에서 올해 123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기존 초·중·고등학교 학생 선수 지원사업을 통합·개편해 저소득층 학생 선수 총 3천여명에게 연간 1인당 50~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독자수기

본지에 게재된 글은 지난 2010년 10월 18일(월)과 19일(화) 양일간 올림픽파크텔에서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의 주관으로 개최된 『2010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에서 ‘자립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한 박종원·정명옥 부부의 수기로, 장애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와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긴 작품입니다.

“장애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져 준 남편”

박종원·정명옥 부부 (자립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어느 덧 남편과 결혼한지도 23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다. 지금 생각하니 정말 세월이 유수같이 빨리도 흐른 것 같다. 어려서 소아마비라는 병으로 평생 장애를 입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었는데 주어진 삶이기에 또한 내가 피할 수 없이 지고 갈 짐이기에 정말 매사에 많이도 참으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다.

나는 6.25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이 놀랐고 어느 날 심한 열과 함께 소아마비라는 병으로 원치 않는 장애를 갖게 된 것이다. 전쟁 중에 병원 한번 가지 못한 채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마저 열한 살 때 돌아가시니 나는 정말 형제들에게 큰 짐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려서는 뽀뽀뽀뽀 조금씩 걷기도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 점 몸은 심해져서 아주 걸을 수 없을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 때 나는 형제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오빠네 집에서 나기로 결심하게 되어 1979년도에 충주로 오게 된 것이다. 그 당시 오빠네 집에 있으면 편하기는 하겠지만 20년 후를 생각하니 행여나 조카들의 혼사 길을 막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여서 아는 친구의 소개로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찾아온 것이다.

처음에 와보니 괜히 왔나보다 하고 후회도 많이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 도구였었다는 것을 지금에야 알게 되었다. 의식주 특히 겨울이면 참을 수 없는 추위는 정말 큰 괴로움이었다. 그러면서 전자일을 하면서 겨우 연명도 해보았지만 주변에서 돕는 손길도 많았기에 잘 견딜 수가 있었던 것 같다.

내가 형제들에게 짐이라는 생각과 장애의 나의 삶에 무게가



지난해 10월 18일(월)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된 『2010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에서 ‘자립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고 있는 박종원·정명옥 부부.

너무 무거워 나를 짓누를 즈음에 남편을 만나게 되어 나의 중년의 삶은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 되었다. 나는 어려서부터 결혼이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던 중에 재활원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

남편은 장애인은 아니었으나 그 역시 어려서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고생하다가 지병을 앓고 있어서 재활원에 잠시 머물렀던 사람이었다. 그러다 재활원이 문을 닫게 되어 모두 뿔뿔이 헤어졌다가 3년 후에 내가 살고 있던 집에 이사를 오게 되어 한 울타리 안에서 살면서 아저씨는 나의 일들을 도와주었다. 연탄불 가는 일, 일거리를 맡아주는 일, 그리고 아저씨는 가끔 나의 휠체어를 밀고 나가 시원한 바람도 쐬어주곤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지내면서도 나는 결혼할 마음은 전혀 없었다. 내 마음 속에는 나의 힘든 삶은 나 하나로 끝낸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주변에서 아저씨와 결혼하라고 권하였지만 나는 전혀 결혼할 마음은 없었다. 나

는 나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나의 장애는 너무 심해서 기본적인 내 몸 하나 건사할 수 없어 모두 친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더욱이 그 당시 옛날에 낡은 일반 주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내 주변에는 장애인들이 결혼하여 모두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었지만 나는 그들의 삶을 부럽다거나 나도 저들과 같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단지 잘 사는 친구들을 보면 기쁘고 그들이 사랑스럽고 또 못 사는 친구들을 볼 때는 마음이 아팠었다. 그 친구들은 항상 나를 가족 같이 대해 주었기에 나는 조금도 외롭지 않았기에 결혼을 생각 안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던 어느 날 아저씨는 술이 좀 취한 모습으로 내게 하는 말이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이웃으로만 어울려 살거나? 우

리도 함께 살자” 라고 하는 말에 나는 말도 되지 않는 말하지 말라고 잘라서 말했다. 그 이유는 아저씨가 몸이 아프면 약한 첩사다 줄 수도 없고 따뜻한 밥한 끼 차려 줄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늘 아픈 아저씨가 죽으면 나는 더 초라해지지 않겠느냐면서 한마디로 거절하였었다. 아저씨는 “알았어” 하면서 돌아서서 나가셨다.

그 후에 아저씨는 배가 많이 아파 병원에 가서 대장을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은 후 많이 아플 때 우리는 결혼하기로 하고 많은 사람들의 우려 속에서 결혼을 하였다. 남편의 마음이 변할 거라, 아니면 얼마 살 수가 없을 거라는 등 정말 많은 염려와 구설 속에 우리가 서로 안지 7년 만에 결혼을 하였다.

우리는 그동안 서로 힘든 일들도 많았지만 남편은 변함없이 나를 짊어 주고, 빨래며 식생활이며 변함없이 가정을 꾸려오고 있다. 남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그 무엇에 비할 수가 없다. 땀을 뻘뻘

흘리며 집안일이며 음식을 만들 때면 나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남편 앞에 짹짹 요리도 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이제 남편이 나이도 많아지고 나도 더 힘이 없으니 더 어렵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전동휠체어가 있어 얼마나 수월하고 감사한지 하나님께 주변에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할 뿐이다. 그러나 그렇게 지내면서도 우리는 전혀 결혼할 마음은 없었다. 내 마음 속에는 나의 힘든 삶은 나 하나로 끝낸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분들의 사랑이며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이었다.



박종원·정명옥 부부

‘후원’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원동력

JYJ 김준수,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쌀’ 기부



서울 휘경동 동문장애인복지관에 JYJ 김준수가 기부한 쌀화환 1.3톤이 전달되고 있다

인기 아이돌 그룹 JYJ의 멤버 김준수(24)가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쌀’을 기부해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

김 씨는 지난 4일(금) 자신이 출연하고 있는 뮤지컬 ‘천국의 눈물’을 응원하기 위해 일본팬들이 보내온 1.3톤 가량의 쌀화환을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의 남양주시 서부희망케어센터에 650kg, 서울 동문장애인복지관에 650kg를 각각 전달했다.

서부희망케어센터와 동문장애인복지관은 JYJ 김준수 측에서 지정한 곳이며, 김 씨는 “장애인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여 지기를 희망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씨와 같은 JYJ의 멤버인 유천과 재중은 지난해 JYJ 쇼케이스와 콘서트, 유천이 출연한 드라마 ‘성균관스캔들’ 제작발표회와 종방연 등에 국내외 팬들이 보내온 응원 쌀화환 11톤, 결식아동 약 1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사랑의 쌀을 기부한 바 있다. 특히 연평도 포격피해주민을 위해 쌀 500kg을 기부하며 조윤길 오진군수로부터 감사편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JYJ는 3월 12일(토) 잠실실내체육관 팬미팅과 4월부터 시작되는 7개국 10개 도시 순회 및 월드투어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

바른손게임즈, 장애인 오케스트라단에 기부금 전달

온라인 게임업체 바른손게임즈(대표 이상민)는 지난달 28일(월) 자사에서 개발 및 서비스 중인 다중접속 역할수행게임(MMORPG) ‘라그하임’에서 진행한 이벤트를 통해 모금된 기

부금을 장애인 아동들로 구성된 ‘기쁜우리첼버 오케스트라단’에 전달했다.

바른손게임즈는 지난 1월26일부터 ‘라그하임’ 고객들을 대상으로 게임 포인트를 기부하는 방식의 모금 이벤트를 진행했고,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주 만에 300만원 상당의 목



기부금 전달 모습. 기쁜우리월드 윤상인 관장(좌)과 바른손게임즈의 원성연 매니저.

표 포인트를 달성했다. 이에 바른손게임즈는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에 방문해 장애인 아이들로 구성된 기쁜우리첼버 오케스트라단에 라

그하임 포인트의 실제 금액에 상당하는 기부금과 소정의 선물을 전달했다. 바른손게임즈의 원성연 매니저는 “바른손게임즈는 재미있는 게임 서비스뿐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게임업체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위해 앞장 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전국에 16개 시·도 협회와 232개 시·군·구 지회를 두고 있는 비영리 순수 장애인단체입니다.

또한 이 나라 480만 장애인들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각종 교육사업, 장애인예술제 및 중증장애인배우자 초청대회, 장애인자립작업장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를 선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장애인복지를 꽃피우고 이들이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으로 확신하며 ‘사랑 나눔 운동’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회원구분

일반회원 (2천원/월)	일반회원2 (5천원/월)	일반회원3 (1만원/월)
특별회원1 (3만원/월)	특별회원2 (5만원/월)	특별회원3 (10만원/월)
단체회원 (연 20만원이상)	기금회원	물품회원

■후원금 납부방법

- 지로, 자동이체
- 후원계좌 : 국민 822-01-0136-451
농협 033-01-174991

※ 후원금은 연말에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신청

- ① 전화신청 : ☎02)796-4280
- ② 홈페이지 신청
협회 홈페이지(<http://www.kapdp.or.kr>) 접속 - 나눔마당 - 후원신청

■2011년 2월 후원자 명단(가나다 순)

강지민, 김구환, 김유경, 김정태, 김진호, 김천장애인종합복지관, 김태우, 김환경, 남용원, 남혁우, 민속박물관, 박소연, 박정현, 박종형, 서재훈, 선병욱, 손영주, 양순연, 유재복, 윤순애, 윤주석, 윤채환, 이상돈, 이은정, 이지수, 임재종, 정은연, 주병희, 주승운, 주영래, 주영우, 최옥란, 최인준
(후원자님이 후원해 주신 후원금은 480만 장애인들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 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후원자에게는 ‘월간 새보람’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응모요령
 '★'에 있는 말로 단어를 조합해 우편엽서에 정답을 적어 보내 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홍보협력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2018 동계올림픽은 강원도 ○○에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지난호 정답

1 사				2 암	거	래
소		3 속	리	★ 산		
4 취	득	세				5 토
대					6 이	끼
					★ 순	
		7 물		8 가	신	
		9 가	로	수		

2월호 정답

순 산

당첨자

정영옥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석종문 경남 김해시 진영읍
 이정희 서울 노원구 상계동

| 가로열쇠 |

- 주로 여성의 다리에서 느끼는 아름다움.
- 궁한 나머지 생각다 못하여 짜낸 계책.
- 맡겨진 임무.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
- 나쁜 꾀로 남을 속임.
- 백두산 꼭대기에 있는 못. 화산 활동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며, 표면 수온은 7월에 9.4℃, 내부 수온은 연중 4℃이고, 가장 깊은 곳은 312미터 정도이다. 중국 송화 강(松花江)으로 흘러드는데 못의 동쪽 기슭인 송화 강 상류에는 온천이 있다. 면적은 약 7km².
-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 포지션은 미드필더이며 현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볼턴 원더러스 FC 소속으로 뛰고 있다.

| 세로열쇠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에 있는 궁궐. 조선 태종 때에 건립된 것으로 역대 왕이 정치를 하고 상주하던 곳이며, 보물 383호인 돈화문 따위가 있다.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깨어 정신을 차림.
- 미인은 불행하거나 병약하여 요절하는 일이 많음.
- <지리> 바닥이 편편한 땅.
- 여행자의 편의를 돌보아 주는 영업 기관.
- 중국 전한(前漢)의 역사가(?B.C.145~?B.C.86). 자는 자장(子長). 기원전 104년에 공손경(公孫卿)과 함께 태초력(太初曆)을 제정하여 후세 역법의 기초를 세웠으며, 역사책 《사기》를 완성하였다.
-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환경부 소속으로, 우리나라의 기상 상태를 관측하고 예보하는 사무를 맡아본다. 1990년 12월에 '중앙 기상대'에서 승격하였다.
- 오랫동안 누적된 변형 에너지가 갑자기 방출되면서 지각이 흔들리는 일. 지학(地學)에서는, 지구 내부의 한 곳에서 급격한 움직임이 일어나 그곳에서 지진파가 시작되어 지표(地表)까지 전하여지는 일을 이른다. 진도(震度)에 따라 미진, 경진, 약진, 중진, 강진, 열진, 격진으로 나눈다.



두 사진에는 3곳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매달 정답자 세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비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가브리엘 천연공방의 '천연비누'

천연화장품 & 천연비누



당신의 피부...
 피부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연을 생각하는 아인미의 모든 원료는 화학원료가 아닌, 자연 속의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과 천연광물, 천연색소와 화장품 원료 기준에 적합하고 검증된 원료들만을 만들어진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자연을 힘으로 스트레스와 유해물질들로 지치고 손상된 당신의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인미 비누는, 천연비누업계 최초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 및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받은 제품을 취급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기념품, 답례품



천연화장품



천연비누



천연폼클렌징



천연바디워시

천연주방세제

※가브리엘 천연공방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쓰여집니다.



■문의
 Tel. 930-0783 Fax. 930-0784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021-21
 http://www.gabrielcenter.or.kr

응모요령 : 2장의 사진 중 아래의 사진에 틀린 부분을 표시하고(2개 이상) 절취한 후, 우편엽서 뒷면에 붙여서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보협력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 Seoul International Wheelchair Marathon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통역 자원봉사 모집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조직위원회는 “도전과 극복...서울의 감동을 세계로”를 슬로건으로 오는 5월 8일 개최될 예정인 『제20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선수 및 대회지원 통역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 자원봉사접수처
- <http://club.cyworld.com.swim>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자원봉사자모임)
- ◇ 자원봉사접수기간 : 2011년 4월 1일(금) ~ 20일(수) / 합격자 발표 : 2010년 4월 22일(금)
- ◇ 자원봉사 기간
- 외국선수 통역 및 대회지원 : 2011년 5월 5일(목) ~ 5월 9일(월)
- ◇ 자원봉사 모집언어
- 선수통역 : 영어, 일어, 스페인어, 태국어, 필리핀어,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 ◇ 문의 : TEL) 02-2289-4332 / FAX) 02-796-4281